

수시, 여섯 장을 어디에 쓸 것인가

전형 구조부터 원서 마감까지

- ◆ 이 책은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공개된 요강·공시 자료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 1부 · 구조를 읽는다** 무엇이 있고 어떻게 재는가 · 6편
- 2부 · 과목을 정한다** 무엇을 골라 어디에 힘을 쓸 것인가 · 9편
- 3부 · 원서를 낸다** 되돌릴 수 없는 자리들 · 7편

1 부

구조를 읽는다

무엇이 있고 어떻게 재는가

수시 여섯 장, 전형은 네 갈래

수능최저 문장 읽는 법

합격선은 최저선이 아닙니다

교과와 학종, 같은 학과인데 왜 합격선이 다른가

경쟁률 숫자에 속지 않는 법

예비번호는 어디까지 도는가

2 부

과목을 정한다

무엇을 골라 어디에 힘을 쓸 것인가

수학 내신이 무너지는 세 자리

미적분을 선택할 것인가

국어, 등급이 안 오르는 까닭

영어 절대평가에서 1등급과 2등급의 차이

탐구 두 과목, 무엇을 고를 것인가

수리논술은 누가 쓰는 시험인가

약술형 논술 — 가장 저평가된 문

논술 고사일이 겹칩니다

세특, 무엇을 적어야 읽히는가

3 부

원서를 낸다

되돌릴 수 없는 자리들

내신 3등급,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섯 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지원 자격을 놓치면 다른 건 다 소용없습니다
원서 쓰기 전 마지막 점검 12가지
추가합격을 기다리는 동안
수시에 다 떨어졌다면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것

114 · 차례

무엇이 어디에 있나

1. 01 수시 여섯 장, 전형은 네 갈래 8
2. 02 수능최저 문장 읽는 법 13
3. 03 합격선은 최저선이 아닙니다 18
4. 04 교과와 학종, 같은 학과인데 왜 합격선이 다른가 23
5. 05 경쟁률 숫자에 속지 않는 법 28
6. 06 예비번호는 어디까지 도는가 33
7. 07 수학 내신이 무너지는 세 자리 38
8. 08 미적분을 선택할 것인가 43
9. 09 국어, 등급이 안 오르는 까닭 48
10. 10 영어 절대평가에서 1등급과 2등급의 차이 53
11. 11 탐구 두 과목, 무엇을 고를 것인가 58
12. 12 수리논술은 누가 쓰는 시험인가 63
13. 13 약술형 논술 — 가장 저평가된 문 68
14. 14 논술 고사일이 겹칩니다 73
15. 15 세특, 무엇을 적어야 읽히는가 78
16. 16 내신 3등급,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83
17. 17 여섯 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88
18. 18 지원 자격을 놓치면 다른 건 다 소용없습니다 93
19. 19 원서 쓰기 전 마지막 점검 12가지 98
20. 20 추가합격을 기다리는 동안 103
21. 21 수시에 다 떨어졌다면 108
22. 22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것 113

01 · 머리말

이 책을 왜 드리나

저희는 학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무료입니다.

까닭을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시 정보는 넘칩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것과 파는 말이 섞여** 있어서, 학부모님이 그것을 가려내는 데 시간을 다 쓰십니다. 그 상태로 상담에 오시면 **첫 시간을 오해를 푸는 데** 씁니다.

이 책을 읽고 오시면 그 시간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과의 상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나눠 드리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책 곳곳에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로 시작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학원을 늘리지 마시라는 말, 이걸 상담 없이 집에서 하실 수 있다는 말, 그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은 자료라야 나머지 말도 믿으실 수 있습니다.

숫자에는 출처를 달았고, 없으면 안 썼습니다.

이 책의 숫자는 **공개된 모집요강·공시 자료·국가 통계**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각 편 끝에 적어 두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자리는 **「저희 판단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다르게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구분해 두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CUBE

2026년 8월

02 · 먼저 읽을 것

수시 전체 지도

수시는 여섯 번의 기회가 아닙니다. 네 갈래 가운데 네 것을 고르고, 그 안에서 여섯 장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 책 스물두 편은 그 순서대로 놓여 있습니다.

먼저 전체 크기를 보십시오. 2027학년도 수시 요강 **6,482줄**을 갈래로 나눈 것입니다.

갈래	모집 인원	수능최저	무엇을 보나
학생부종합	30,468명	15%	서류 전체를 읽습니다
학생부교과	26,958명	69%	내신을 계산합니다
논술	9,314명	73%	그날 쓴 답안을 봅니다

이 표에서 수시 전략의 뼈대가 나옵니다. 수능이 되면 교과와 논술이 열리고, 안 되면 학종만 남습니다. 그래서 「수시니까 수능은 대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수시 자리의 절반 가까이가 수능을 봅니다.

세 부의 차례

부	무엇을	편
1부 구조를 읽는다	네 갈래 · 수능최저 · 합격선 · 경쟁률 · 충원 — 숫자를 읽는 법	6
2부 과목을 정한다	수학 · 선택과목 · 국어 · 영어 · 탐구 · 논술 · 세특 — 어디에 힘을 쓸 것인가	9
3부 원서를 낸다	배분 · 자격 · 점검 · 충원 · 정시 · 부모 몫 — 되돌릴 수 없는 자리들	7

3부를 먼저 읽으셔도 됩니다. 원서가 코앞이시라면 그편이 낫습니다. 다만 3부의 판단은 1부의 숫자 위에 서 있습니다 — 「정시 선보다 낮은 자리는 쓰지 마십시오」가 왜 그런지는 1부에서 설명합니다.

이 책이 하지 않는 것

개별 학과의 합격선을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합격선은 그해 지원자가 만드는 것이고, 지원자는 원서 마감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학교를 가로지르는 구조와 분포를 보여 드리는 것, 그리고 산술로 정해지는 것을 정확히 계산해 드리는 것까지입니다.

03 · 숫자부터

여섯 장을 네 갈래에 나눠 씁니다

「수시 여섯 장, 어디에 쓰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무엇이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수시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네 갈래이고, 갈래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성적이 같아도 어느 갈래에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2027학년도 수시 요강 6,482줄(41개 대학)을 갈래로 나눠 세어 보았습니다.

갈래	모집 인원	수능최저	경쟁률 중앙	무엇을 보나
학생부종합	30,468명	15%	12.4:1	서류 전체를 읽습니다
학생부교과	26,958명	69%	9:1	내신을 계산합니다
논술	9,314명	73%	36:1	그날 쓴 답안을 봅니다
실기	—	—	—	실기 능력

표에서 세 가지가 바로 읽힙니다.

하나 — 학종과 교과가 대부분입니다. 둘을 합치면 57,426명입니다. 논술은 9,314명으로 훨씬 작습니다. 수시의 중심은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둘 — 최저를 거는 비율이 갈래마다 크게 다릅니다. 교과는 69%, 논술은 73%가 수능최저를 겁니다. 그런데 **학종은 15% 뿐이어서, 수능이 약한 학생에게 학종이 열려 있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셋 — 경쟁률은 갈래를 건너 비교하면 안 됩니다. 논술 36:1 과 교과 9:1 은 **다른 뜻입니다.** 까닭은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41개 대학 6,482줄을 저희가 집계. 경쟁률은 전년도 값의 중앙값입니다. 모집 인원은 요강 기준입니다.

04 · 무엇이 다른가

읽는 전형과 계산하는 전형

네 갈래는 「같은 학생을 다르게 보는 네 개의 창」입니다. 무엇을 보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부교과 — 계산합니다

내신 등급을 정해진 식에 넣어 점수로 바꿉니다. 어느 과목을 몇 % 반영하는지가 요강에 적혀 있고, 그대로 계산합니다. 사람의 판단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 가장 쉬운 전형**입니다. 대신 **내신 말고는 보텔 것이 없습니다.** 활동이 아무리 좋아도 계산식에 자리가 없으면 안 들어갑니다.

학생부종합 — 읽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등급도 보지만 어떤 과목을 골랐는지, 세특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3년 동안 무엇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등급이 같아도 결과가 갈립니다.** 이것을 「불공정」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맥락을 본다」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준비하는 방법이 교과와 완전히 다릅니다.

논술 — 그날 쓴 것을 봅니다

내신도 반영하지만 **비중이 작고, 논술 점수가 사실상 가릅니다.** 요강에 「**논술100**」이라고 적힌 곳도 476줄입니다 — 내신을 아예 안 보는 자리입니다.

내신이 약한 학생에게 열려 있는 거의 유일한 수시 문입니다. 대신 경쟁률이 높고, 73%가 수능최저를 겁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전형 운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니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05 · 그래서 무엇을

여섯 장을 나누는 차례

여섯 장을 어떻게 나눌지는 「내가 가진 것」에서 시작합니다. 가지지 않은 것에 장을 쓰면 그 장은 버리는 것입니다.

차례	물을 것	답에 따라
1	내신이 목표 대학 선에 드는가	들면 교과가 가장 확실합니다
2	생활기록부에 이어진 이야기가 있는가	있으면 학종이 열립니다
3	수능최저를 맞출 수 있는가	맞추면 교과·논술의 문이 넓어집니다
4	글로 푸는 것이 강한가	강하면 논술을 섞습니다

3번이 판을 크게 바꿉니다. 교과의 69%, 논술의 73%가 최저를 겁니다.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자리가 크게 늘고, 못 맞추면 그 자리들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거꾸로 수능이 약하다면 학종 쪽으로 무게를 옮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학종은 15%만 최저를 겁니다.

흔한 어긋남 셋

여섯 장을 한 갈래에 몰아 쓰는 것 — 그 갈래가 안 맞으면 여섯 장이 함께 무너집니다. 안 되는 갈래에 예의상 한 장 — 버리는 장입니다. 차라리 되는 갈래를 하나 더 쓰십시오. 갈래를 안 정하고 학교 이름부터 고르는 것 —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판단 기준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06 · 점검표

여섯 장을 넣기 전에

인쇄해서 원서 쓰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갈래에 대해

- ☐ 여섯 장이 어느 갈래에 몇 장인지 세어 보았는가
- ☐ 한 갈래에 다 몰려 있지 않은가
- ☐ 안 맞는 갈래에 예의상 넣은 장이 없는가
- ☐ 각 장의 수능최저를 확인했는가
- ☐ 최저를 못 맞췄을 때 남는 장이 몇인지 세어 보았는가

일정에 대해

- ☐ 대학별고사 날짜가 서로 겹치지 않는가
- ☐ 수능 전에 치르는 고사가 몇 개인지 아는가
- ☐ 고사장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인가

마지막 셋을 원서 쓴 뒤에 확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때는 못 바꿉니다. 넣기 전에 달력에 찍어 보십시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장을 다 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 자리가 넷이면 넷만 쓰시는 편이, 억지로 여섯을 채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남은 두 장은 정시로 가는 힘으로 남습니다. 상담을 파는 쪽은 여섯 장을 다 채워 드리는 것이 일처럼 보이지만, 버리는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도움이 아닙니다.

07 · 자주 묻는 것

수시를 앞둔 학부모님이 하시는 질문

Q. 학종은 준비할 방법이 없던데요?

「비법이 없다」와 「준비할 것이 없다」는 다릅니다.

학종에는 점수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붙는다」는 말은 지어낸 것입니다. 그런 말을 파는 곳은 근거를 대지 못합니다.

다만 학종이 읽는 것은 **생활기록부**이고, 그건 **학교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수업에서 무엇을 했는지, 세특에 무엇이 적히는지, 3년이 이어지는지. **이건 준비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그래서 학종 준비의 대부분은 **고1·고2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고3에 시작하시면 늦고, **고1에 신경 쓰시면 따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Q. 내신이 안 좋으면 수시는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만 **갈래를 좁히셔야** 합니다.

내신을 계산하는 교과 전형은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논술은 내신 비중이 작고**, 요강에 「논술100」이라 적힌 자리가 476줄입니다 — **내신을 아예 안 보는 자리**입니다.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논술은 경쟁률이 높고 **73%가 수능최저를 겁니다**. 그러니 「**내신이 약하다**」의 다음 질문은 「**수능은 어떤가**」입니다. 수능이 되면 논술이 열리고, 수능도 어려우면 학종 쪽을 보셔야 합니다.

포기할 일이 아니라 문을 갈아타는 일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수시는 여섯 번의 기회가 아니라 **네 갈래 가운데 내 것을 고르는 일**입니다. 갈래를 먼저 정하면, 학교는 그다음에 저절로 좁혀집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학과의 합격선·경쟁률은 심지 않습니다 — 전형 구조만 다릅니다. 요강은 정정될 수 있으니 지원 전에는 각 대학 입학처의 최종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08 · 숫자부터

절반 가까이가 최저를 겁니다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요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한 줄을 못 읽으면 **쓸 수 없는 자리에 원서를 넣거나, 쓸 수 있는 자리를 놓칩니다**. 다행히 이건 **해석이 아니라 산술**입니다. 읽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 요강 6,482줄 가운데 **2,971줄(46%)**이 수능최저를 겁니다. 갈래마다 크게 다릅니다.

갈래	최저를 거는 비율	무엇을 뜻하나
논술	73%	수능 없이는 대부분 못 씁니다
학생부교과	69%	내신만으로는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학생부종합	15%	대부분 안 겁니다

이 표가 **수시 전략의 뼈대**입니다. 수능이 되면 교과와 논술이 열리고, 안 되면 학종만 남습니다. 그러니 「수시니까 수능은 대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수시 자리의 절반 가까이가 수능을 봅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41개 대학 6,482줄을 저희가 집계. 최저 문장을 규칙으로 옮겨 썼습니다.

09 · 문장 읽는 법

「합」과 「각」 두 가지뿐입니다

최저 문장은 길어 보여도 생김새가 둘입니다.

생김새	몇 줄	요강의 말	뜻
합형	2,751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고른 영역의 등급을 더해서 5 이하
각형	157	「1개 영역 3등급 이내」	어느 하나가 각각 3등급 이내

거의 다 합형입니다. 그러니 합형 읽는 법만 익히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보십시오.

하나 — 몇 개 영역을 고르는가

고르는 영역 수	줄	비중	어떤 학생에게
2개	1,844	67%	강한 과목 둘이면 됩니다
3개	776	28%	고르게 해야 합니다
4개	131	5%	약한 과목이 없어야 합니다

2개짜리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 2개는 못하는 과목을 버릴 수 있습니다. 네 영역 중 잘하는 둘만 세면 되니, 고르게 잘하는 것보다 확실한 둘이 낫습니다.

둘 — 합이 얼마인가

같은 「2개 영역」이라도 합이 4냐 7이냐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합 4는 평균 2등급, 합 7은 평균 3.5등급입니다.

셋 — 탐구를 어떻게 세는가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탐구 2과목 평균」과 「탐구 1과목」은 다릅니다. 평균이면 두 과목 등급을 평균 내고, 1과목이면 잘 본 하나만 씁니다. 한 글자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 그리고 「탐구 2과목만으로는 최저를 맞출 수 없음」이라고 못 박은 곳도 있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수능최저 문장을 규칙으로 옮겨 집계. 문장이 복잡해 규칙으로 못 옮긴 것은 세지 않았습니다.

10 · 등급 합의 분포

어느 선이 흔한가

합형 2,751줄의 등급 합의 어떻게 퍼져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등급 합	줄	비중	대략 어느 선인가
3	4	0%	매우 높습니다
4	235	9%	매우 높습니다
5	593	22%	높은 편입니다
6	586	21%	높은 편입니다
7	578	21%	넓게 열려 있습니다
8	549	20%	넓게 열려 있습니다
9 이상	206	7%	영역 수가 많은 조건입니다

합 5·6·7에 몰려 있습니다. 셋을 더하면 64% 입니다.

이 표는 거꾸로 쓰실 때 값집니다. 지금 성적으로 맞출 수 있는 합의 얼마인지 먼저 세어 보시고, **요구 조건이 그 합보다 험거운 자리가 몇 %인지를 보시면 내 문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가 보입니다.

한 등급이 문을 얼마나 여는가

쌓아서 세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내 합의 얼마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 등급 합	쓸 수 있는 자리	한 칸 좋아지면
8	27%	합 7 이 되면 48% — 21%p 넓어집니다
7	48%	합 6 이 되면 70% — 22%p 넓어집니다
6	70%	합 5 이 되면 91% — 21%p 넓어집니다
5	91%	합 4 이 되면 100% — 9%p 넓어집니다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십시오. 합 8에서 합 7로 한 칸만 좋아져도 쓸 수 있는 자리가 21%p 넓어집니다. 수능 한 과목을 한 등급 올리는 일이 이만큼입니다. 「수시 쓰는데 수능 공부를 왜」 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거꾸로도 읽으십시오. 합의 한 칸 나빠지면 그만큼 자리가 닫힙니다. 수능 당일에 한 과목이 흔들리면 여섯 장 가운데 몇 장이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최저 없는 자리를 몇 장 섞어 두는 것이** 안전판이 됩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합형 2,751줄 기준. 같은 등급 합이라도 어느 영역을 고르는지에 따라 난이도가 다릅니다.

11 · 그래서 무엇을

세는 차례와 점검표

최저는 계산해 보면 끝나는 일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차례	무엇을	어떻게
1	모의고사 등급을 적습니다	국어·수학·영어·탐구 각각
2	잘한 것부터 줄을 세웁니다	2개·3개를 골라 더해 봅니다
3	내 합이 얼마인지 적습니다	「2개 합 ○」·「3개 합 ○」
4	쓰려는 곳의 조건과 맞춰 봅니다	요강 한 줄과 내 숫자
5	탐구 세는 법을 확인합니다	평균인가 1과목인가

2번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최저는 「고르는」 조건입니다. 네 영역을 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2개 조건이면 잘하는 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약한 과목을 붙들고 계신 것보다 **강한 둘을 확실하게 만드시는 편**이 최저 충족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원서 넣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여섯 장 각각의 **최저 문장** 을 옮겨 적어 보았는가
- ☐ 「합」 인지 「각」 인지 **구분했는가**
- ☐ 몇 개 영역을 고르는 조건인지 **세었는가**
- ☐ **탐구** 가 평균인지 1과목인지 확인했는가
- ☐ **한국사 필수** 조항이 있는지 보았는가
- ☐ 영어가 **따로 걸려** 있지 않은가
- ☐ 내 등급으로 **실제로 계산해** 보았는가
- ☐ 최저를 **못 맞췄을 때** 남는 장이 몇인지 세어 보았는가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섯 장이 다 최저를 걸고 있으면, 수능 하루에 여섯 장이 함께 걸립니다. 최저 없는 자리를 몇 장 섞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 계산은 상담을 받지 않으셔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강에서 그 한 줄을 찾아 옮겨 적고, 모의고사 등급을 더해 보시면 끝입니다. 십 분이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 분이 원서 한 장을 살립니다.**

12 · 자주 묻는 것

수능최저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최저를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불합격입니다. 다른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습니다. 1단계를 통과하고 면접을 잘 봤어도, 최저를 못 맞추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최저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서를 쓸 때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 조건입니다.

거꾸로 보면 이것이 기회이기도 합니다. **최저를 못 맞춘 지원자가 빠지면서 실제 경쟁률이 크게 내려갑니다.** 표면 경쟁률이 30:1이어도 최저를 넘긴 사람만 세면 훨씬 낮아집니다. **최저가 높은 자리일수록 이 효과가 큼니다.**

Q. 영어 1등급이면 최저가 쉬워지나요?

대개 그렇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라 다른 영역보다 등급을 확보하기 쉬운 편입니다. 합형에서 영어를 한 자리로 쓰면 나머지 하나만 챙기면 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다만 **확인하실 것이 둘** 있습니다.

첫째, 영어를 **합에 넣을 수 있는지**입니다. 「영어를 제외한 3개 영역」처럼 영어를 빼고 세는 조건이 있습니다.

둘째, 영어에 **따로 조건**을 거는 곳이 있습니다 — 합과 별개로 「영어 2등급 이내」를 요구하는 식입니다.

영어가 강한 학생은 최저 조건으로 지원 자리를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성적으로도 **영어를 세어 주는 곳을** 고르면 문이 넓어집니다.

한 줄로 남기면

수능최저는 **해석하는 문장이 아니라 계산하는** 식입니다. 한 번 계산해 두면 여섯 장이 저절로 추려집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수능최저 문장을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조건은 심지 않았습니다 — 반드시 해당 요강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요강은 정정될 수 있으며, 이 자료는 합격 여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13 · 숫자부터

「컷」은 커트라인이 아닙니다

「작년 컷이 2.8이래요. 우리 애가 2.7이니까 되겠네요.」

가장 위험한 계산입니다. 「컷」은 **합격 최저선이 아닙니다**. 이름이 그렇게 들릴 뿐, 실제로는 **합격자를 줄 세웠을 때 어느 자리의 성적**입니다. 이 하나만 아셔도 원서 여섯 장이 달라집니다.

대학이 공개하는 값은 대개 셋입니다. **줄 세운 자리가 다릅니다**.

이름	무엇인가	어떻게 읽나
50%컷	합격자를 성적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보통 이 정도가 붙었다」
70%컷	위에서 70% 자리 에 있는 합격자	가장 널리 쓰이는 값
100%컷	맨 끝 에 붙은 합격자	이것이 실제 최저선 에 가깝습니다

「컷」이라 부르는 것은 대개 **70%컷**입니다. 그런데 70%컷은 **합격자 열 명 중 세 명이 그보다 낮았다**는 뜻입니다. **커트라인이 아니라 상위 70% 지점**입니다.

그러니 「내 성적이 컷보다 높으니 안전하다」는 계산은 **기준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70%컷보다 높으면 **작년 합격자 가운데 상위 70% 안에 든다**는 뜻이지, **올해 붙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대학 제출) 2026학년도 자료를 저희가 집계. 공개 항목과 이름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14 · 얼마나 벌어지나

70%컷과 끝자리의 거리

그러면 70%컷과 실제 끝자리는 얼마나 벌어질까요. 세어 보았습니다.

무엇과 무엇	표본	중앙값 차이	어떻게 읽나
50%컷 → 70%컷	6,775줄	0.09등급	둘은 대개 가깝습니다
70%컷 → 100%컷	911줄	0.22등급	여기서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중앙값만 보면 0.22등급이라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니다.

70%컷과 100%컷이	그런 곳의 비율
1등급 넘게 벌어지는 곳	16%
2등급 넘게 벌어지는 곳	5%

일곱 곳 중 한 곳꼴로 1등급 넘게 벌어집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70%컷보다 한 등급 아래인 학생도 붙었습니다. 「컷을 못 넘으니 안 된다」로 접으셨다면 쓸 수 있는 자리를 버린 것입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50%컷과 70%컷은 대개 붙어 있습니다(0.09등급).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좁은 구간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구간 위에 있다고 안심할 근거는 못 됩니다 — 그 구간에 사람이 가장 많으니까요.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 2026학년도. 100%컷을 공개한 곳이 적어 표본이 작습니다(911줄). 대학마다 공개 범위가 달라 공개한 곳끼리만
견준 값입니다.

15 · 왜 안 맞는가

작년 숫자가 올해를 못 맞히는 까닭

컷을 정확히 읽으셔도 여전히 올해를 맞히지는 못합니다. 까닭이 넷입니다.

Q. 하나 — 합격선은 지원자가 만듭니다

대학이 미리 정해 놓은 선이 아닙니다. 그해에 누가 지원했는지가 선을 만듭니다. 작년에 몰렸으면 올해는 빠지고, 작년에 빠졌으면 올해는 몰립니다. 「작년에 낮았다」가 올해 낮을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작용합니다.

Q. 둘 — 모집 인원이 바뀝니다

같은 학과라도 해마다 뽑는 수가 달라집니다. 뽑는 수가 줄면 선이 올라갑니다. 요강의 올해 모집 인원과 작년 인원을 나란히 놓고 보셔야 합니다.

Q. 셋 — 전형 방법이 바뀝니다

반영 과목, 등급 환산표, 면접 유무, 수능최저. 하나만 바뀌어도 작년 숫자와 올해 숫자는 다른 자를 쓴 값이 됩니다. 최저가 바뀐 해가 특히 그렇습니다 — 지원자 구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Q. 넷 — 공개하는 값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어디는 등급, 어디는 환산점으로 냅니다. 환산점수는 대학마다 식이 달라 서로 견줄 수 없습니다. 같은 「2.8」이 대학이 다르면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컷을 「가능성을 재는 자」가 아니라 「자리를 고르는 자」로 씁니다. 맞힐 수는 없어도 줄은 세울 수 있습니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 및 각 대학 요강. 해석은 저희 판단입니다.

16 · 그래서 무엇을

컷을 쓰는 차례와 점검표

컷은 버리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쓰는 법이 있습니다.

차례	무엇을	왜
1	세 해를 나란히 봅니다	한 해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2	모집 인원과 함께 봅니다	인원이 바뀌면 선이 움직입니다
3	100%컷이 있으면 그것도 봅니다	실제 끝자리가 어디였는지
4	여섯 장을 줄 세우는 데 씁니다	맞히는 데 쓰지 않습니다

4번이 핵심입니다. 컷으로 「붙는다·안 붙는다」를 판정하지 마시고, 여섯 장 사이의 순서를 정하는 데 쓰십시오. 「이 자리가 저 자리보다 위다」는 컷으로 꽤 잘 보입니다. 「이 자리에 내가 붙는다」는 컷으로 안 보입니다.

컷을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이 숫자가 50%인지 70%인지 100%인지 확인했는가

☐ 등급 인지 환산점수 인지 구분했는가

☐ 환산점수라면 다른 대학과 견주지 않고 있는가

☐ 세 해 를 나란히 놓았는가

☐ 올해 모집 인원 이 작년과 같은지 보았는가

☐ 수능최저 가 바뀌지 않았는지 보았는가

☐ 전형 반영 방법 이 그대로인지 보았는가

☐ 이 숫자로 합격을 판정하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 항목이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컷은 지도이지 예보가 아닙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격 가능성 몇 %」라고 숫자로 말해 주는 곳을 조심하십시오. 그 숫자를 만들 근거가 공개 자료에는 없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합격선은 그해 지원자가 만드는 것이고, 지원자는 원서 마감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줄을 세워 드리는 것까지입니다.

17 · 자주 묻는 것

컷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교과·학종·논술의 컷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6학년도 70%컷의 중앙값입니다 — 교과 **2.76등급**, 학종 **3.22등급**, 논술 **4.17등급**.

논술 컷이 가장 낮아 보이는 것은 **논술 전형이 내신을 거의 안 보기 때문**입니다. 내신이 3~4등급이어도 논술 점수로 갈립니다. **내신 컷이 낮다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 그 자리는 **다른 자로 채는 자리**입니다.

학종이 교과보다 낮은 것도 같은 까닭입니다. 등급 말고 **서류를 함께 읽기 때문에** 등급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갈래가 다른 컷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갈래 안에서만 견주십시오.

Q. 그럼 무엇을 믿고 원서를 쓰나요?

믿을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산술로 정해지는 것들**입니다.

수능최저를 맞추는가 — 이걸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지원 자격이 되는가 — 요강에 적혀 있습니다.

고사일이 겹치는가 — 달력에 찍으면 보입니다.

모집 인원이 늘었나 줄었나 — 요강을 견주면 됩니다.

이 넷만 정확히 해도 **여섯 장 가운데 버리는 장이 없어집니다**. 그다음 남은 불확실은 **줄여지지 않습니다** —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 쪽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맞힐 수 없는 것에 힘을 쓰지 마시고, 정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하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컷은 **지나간 해의 기록**이지 올해의 문턱이 아닙니다. **줄을 세우는 데 쓰시고, 판정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전형결과를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합격선은 **실지 않습니다**. 집계는 값을 공개한 대학끼리만 건준 것이라 전체를 대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18 · 숫자부터**같은 학과에서 0.5등급쯤 갈립니다**

「같은 학과인데 교과는 2.5, 학종은 3.1이래요. 그럼 학종이 쉬운 건가요?」

숫자는 맞습니다. **해석이 틀렸습니다**. 학종 합격선이 낮은 것은 쉬워서가 아니라 **등급 말고 다른 것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학종에 원서를 버리게** 됩니다.

학과가 다르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같은 학과에 교과와 학종이 모두 있는 곳만** 골라 짝지어 보았습니다. **1,845쌍**입니다.

무엇을 보았나	결과
학종 합격선이 교과보다 낮은 곳	87%
교과가 더 낮은 곳	12%
낮은 쪽 (중앙값)	0.47등급
0.5등급 넘게 갈리는 곳	51%

열에 아홉 가까이가 학종 쪽이 낮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0.5등급 넘게** 벌어집니다.

이 숫자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 「**내신이 0.5등급 모자라도 학종이면 된다**」. 그 0.5등급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메운 자리**입니다. 무엇으로 메웠는지가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대학 제출) 2026학년도에서 같은 대학·같은 학과에 두 전형이 함께 있는 1,845쌍을 저희가 집계. 학생부 환산등급 70% 컷 기준입니다.

19 · 무엇이 다른가

계산하는 자와 읽는 자

두 전형은 같은 생활기록부를 다른 방식으로 씁니다.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무엇을	등급을 식에 넣습니다	서류를 사람이 읽습니다
반영 과목	요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 과목을 맥락으로 봅니다
세특	대개 안 봅니다	핵심입니다
과목 선택	반영 과목만 셉니다	무엇을 골랐는지를 봅니다
수능최저	69%가 겁니다	15%만 겁니다

그래서 합격선이 갈립니다

교과는 등급 하나로 줄이 쉽니다. 2.5등급과 2.6등급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선이 좁고 단단합니다.**

학종은 등급이 같아도 결과가 갈립니다. 같은 3.0등급 두 학생이 있어도, 하나는 붙고 하나는 떨어집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등급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격선이 넓게 퍼지고, 아래쪽 꼬리가 길니다. 「학종 합격선이 낮다」는 그 긴 꼬리를 본 것입니다.

수능최저가 또 하나의 까닭입니다

교과는 69%가 수능최저를 겁니다. 최저를 못 넘긴 지원자가 빠지면 남는 사람의 등급이 대체로 높습니다. 학종은 15%만 걸어서 그 걸러짐이 없습니다. **합격선 차이의 일부는 여기서 나옵니다** — 학생의 수준 차이가 아니라 **거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및 어디가 전형결과. 해석은 저희 판단입니다.

20 · 어느 쪽이 내 자리인가

가른 뒤에 고르십시오

둘 중 어디에 쓸지는 **성적이 아니라 생활기록부의 생김새**가 정합니다.

이런 학생은	어느 쪽	왜
등급이 고르게 좋다	교과	식에 넣으면 그대로 점수가 됩니다
등급은 낮는데 세특이 두껍다	학종	읽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주요 과목만 확실히 좋다	교과	반영 과목만 세는 곳을 고릅니다
과목 선택에 이야기가 있다	학종	교과는 그것을 못 봅니다
수능이 강하다	교과	최저로 경쟁자가 걸러집니다
수능이 약하다	학종	최저를 거는 곳이 적습니다

맨 아래 두 줄이 실전에서 가장 크게 작동합니다. 수능이 강하면 교과에서 남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수능이 약하면 그 자리가 나에게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흔한 어긋남 — 「학종은 보험」

합격선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로 **학종을 한두 장 없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종은 **준비 없이 넣으면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읽을 것이 없으면 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종은 보험이 아니라 별도의 문입니다. 생활기록부에 읽힐 것이 있으면 **주력으로** 쓰시고, 없으면 **그 장을 교과나 논술에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판단 기준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21 · 그래서 무엇을

가르는 차례와 점검표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여섯 장이 정리됩니다.

차례	무엇을	어떻게
1	생활기록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부모가 아니라 학생이
2	이어지는 이야기 가 있는지 봅니다	3년에 걸친 것이 있는가
3	목표 대학 교과 전형의 반영 과목 을 봅니다	내 강한 과목이 들어 있는가
4	수능최저 를 맞출 수 있는지 셉니다	맞추면 교과가 유리해집니다
5	여섯 장을 두 갈래에 나눕니다	한쪽에 몰지 않습니다

3번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교과 전형은 반영 과목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전 과목을 보는 곳도 있고 국·수·영·탐만 보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성적으로도 반영 과목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내 약한 과목이 빠지는 곳을 고르면 공부를 더 하지 않고도 등급이 올라갑니다.

두 전형을 가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생활기록부를 **올해 안에 통째로** 읽어 보았는가
- ☐ 세특에 **내가 한 것** 이 적혀 있는가 — 수업 내용만 있지 않은가
- ☐ 3년에 걸쳐 **이어지는 줄기** 가 있는가
- ☐ 과목 선택에 **까닭이 보이는가**
- ☐ 목표 대학의 교과 **반영 과목** 을 확인했는가
- ☐ 반영 과목만으로 **내 등급을 다시 계산** 해 보았는가
- ☐ **수능최저** 를 맞출 수 있는지 세어 보았는가
- ☐ 여섯 장이 **한 갈래에 몰려** 있지 않은가

여섯 번째 항목이 가장 값이 큼니다. 반영 과목만으로 다시 계산하면 전체 등급과 크게 달라지는 학생이 많습니다. 계산은 요강과 성적표만 있으면 집에서 하십시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3에 학종을 「만들어 드리는」 곳을 조심하십시오.** 학종이 읽는 것은 3년치 생활기록부이고, 그건 학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3에 새로 넣을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있는 것을 정확히 읽고, 맞는 자리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22 · 자주 묻는 것

두 전형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내신이 애매하면 어느 쪽이 나은가요?

「애매하다」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고르게 애매한 경우 — 전 과목이 3등급 언저리라면 교과에서는 그대로 3등급입니다. 반영 과목을 골라도 크게 안 달라집니다. 이때는 **학종과 논술** 쪽에 무게를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들쭉날쭉한 경우 — 어떤 과목은 1등급, 어떤 과목은 5등급이라면 **교과가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영 과목을 적게 보는 대학을 고르면 나쁜 과목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등급이 몇이나**」가 아니라 「**어떻게 흩어져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적표를 놓고 **반영 과목별로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Q. 학종에서 봉사·동아리가 중요한가요?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대입 반영에서 빠지거나 줄어든 항목이 있습니다. 무엇이 반영되는지는 해마다 바뀌니 **그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무게가 실려 있는 곳은 **교과 세특**입니다. 수업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궁금해했고, 그것을 어떻게 이어 갔는지. **학종의 중심은 수업 안**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학종 준비란 **바깥에서 활동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수업에서 남길 것을 남기는 일**입니다. 이걸 고1·고2에 이미 정해지고, **고3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작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합격선이 낮은 전형이 쉬운 전형이 아닙니다. **다른 자로 재는 전형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재 주는 자를 고르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요강과 전형결과를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합격선은 신지 않습니다. 집계는 두 전형을 함께 운영하며 값을 공개한 곳끼리만 견준 것입니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23 · 숫자부터

같은 숫자가 갈래마다 다른 뜻입니다

「경쟁률이 30:1이래요.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어느 갈래냐에 따라 답이 정반대입니다. 교과에서 30:1은 매우 높고, 논술에서 30:1은 평균보다 낮습니다.

경쟁률은 갈래를 건너 비교하면 안 되는 숫자입니다.

2027학년도 요강에 실린 전년도 경쟁률의 **중앙값**입니다.

갈래	경쟁률 중앙	30:1 은 여기서
학생부교과	9:1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학생부종합	12.4:1	높은 편입니다
논술	36:1	평균보다 낮습니다

논술 중앙값이 교과의 네 배입니다. 논술이 네 배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논술에 더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논술은 내신을 거의 안 보니 **지원 자격이 사실상 열려 있습니다**. 내신 1등급도 5등급도 같은 자리에 씁니다.

교과는 반대입니다. **내신으로 이미 걸러진 사람들만 씁니다**. 될 만한 사람만 쓰니 지원자가 적고, **대신 그 안의 경쟁이 촘촘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다·낮다로 어렵다·쉽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세고 있는 것이 갈래마다 다릅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에 실린 전년도 경쟁률을 저희가 집계. 교과 2,410줄 · 학종 2,542줄 · 논술 916줄의 중앙값입니다.

24 · 표면과 실질

지원자가 다 경쟁자는 아닙니다

표에 적힌 경쟁률은 「**지원 인원 ÷ 모집 인원**」입니다. 그런데 **지원한 사람이 다 끝까지 겨루지 않습니다**. 세 군데서 빠집니다.

어디서	누가 빠지나	얼마나
1	결시 — 대학별고사에 안 옵니다	논술에서 특히 큼니다
2	수능최저 미충족 — 넘지 못해 탈락합니다	최저가 높을수록 큼니다
3	중복 합격 — 붙어도 안 옵니다	충원율만큼입니다

2번이 가장 큼니다

논술은 **73%가 수능최저를 겁니다**. 그리고 논술 지원자에는 **내신이 약해 수시 다른 문이 좁은 학생**이 많이 섞입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를 못 넘깁니다.

그래서 **표면 경쟁률이 높은 자리일수록 실질은 크게 내려갑니다**. 특히 **최저가 까다로운 자리**가 그렇습니다. **최저를 확실히 넘길 수 있는 학생에게는 표면 경쟁률이 겁줄 이유가 못 됩니다**.

3번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교과의 충원율 중앙값이 **122%**입니다. **정원만큼 다시 도는 것이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즉 **실제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수가 모집 인원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경쟁률을 그대로 읽으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및 어디가 전형결과 집계. 실질 경쟁률은 대학이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저희도 정확한 값을 모릅니다** — 여기서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만 말씀드립니다.

25 · 언제 올라가나

경쟁률이 움직이는 자리

경쟁률은 해마다 크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까닭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Q. 작년에 낮았던 곳은 올해 올라갑니다

모두가 같은 자료를 봅니다. 「작년에 낮았네」를 본 사람이 몰립니다. 그래서 낮은 경쟁률은 스스로를 없앱니다.

거꾸로 작년에 유난히 높았던 곳은 올해 빠집니다. 경쟁률로 자리를 고르는 것이 잘 안 통하는 까닭입니다.

Q. 모집 인원이 줄면 올라갑니다

이건 가장 확실하게 예측되는 움직임입니다. 지원자가 그대로여도 나누는 수가 줄면 경쟁률은 올라갑니다.

요강에서 올해 모집 인원과 작년 인원을 나란히 보십시오. 여기서 크게 줄어든 자리는 작년 경쟁률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Q. 고사일이 겹치면 내려갑니다

논술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같은 날 시험을 치는 대학끼리는 서로 지원자를 나눠 갖습니다. 한 학생이 두 곳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사일이 몰린 날의 대학은 경쟁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걸 노리는 것도 남들이 다 아는 이야기라 기대만큼 안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쟁률로 유리한 자리를 찾는 일은 대체로 실패합니다. 모두가 같은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쟁률은 고르는 자가 아니라 이해하는 자로 쓰십시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움직임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26 · 그래서 무엇을

읽는 차례와 점검표

경쟁률을 볼 때 순서가 있습니다.

차례	무엇을	왜
1	같은 갈래 안에서만 견줄다	갈래를 건너면 뜻이 달라집니다
2	모집 인원을 함께 봅니다	인원이 줄면 올라갑니다
3	수능최저를 함께 봅니다	높을수록 실질이 내려갑니다
4	세 해를 봅니다	한 해는 톱니다

3번이 실전에서 가장 값집니다. 최저가 까다롭고 경쟁률이 높은 자리는, 최저를 확실히 넘기는 학생에게 보이는 것보다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최저가 없고 경쟁률이 낮은 자리는 지원자가 다 끝까지 남아서 보이는 그대로가 실질입니다.

경쟁률을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이 경쟁률이 어느 갈래 의 것인지 확인했는가

☐ 다른 갈래와 나란히 놓고 있지 않은가

☐ 올해 모집 인원 이 작년과 같은가

☐ 이 자리에 수능최저 가 걸려 있는가

☐ 그 최저를 내가 넘길 수 있는가

☐ 세 해 를 나란히 보았는가

☐ 작년에 유난히 낮지 않았는가

☐ 경쟁률로 지원 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 항목을 특히 보십시오. 경쟁률이 낮아서 쓰는 원서는 대개 후회로 끝납니다. 남들도 같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률 낮은 곳을 찾아 드립니다」는 광고를 믿지 마십시오. 경쟁률은 원서 마감 뒤에야 정해집니다. 마감 전에 낮은 곳을 아는 사람은 없고, 안다고 해도 그 정보가 퍼지는 순간 낮지 않게 됩니다. 차라리 최저를 한 등급 올리는 데 힘을 쓰십시오. 그건 확실하게 문을 넓힙니다.

27 · 자주 묻는 것

경쟁률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경쟁률 800:1 같은 곳은 뭔가요?

대개 모집 인원이 매우 적은 자리입니다. 한두 명을 뽑는 자리에 몇백 명이 쓰면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모가 작으면 경쟁률이 불안정해진다**는 점입니다. 1명 뽑는 자리는 지원자가 조금만 늘어도 경쟁률이 확 됩니다. 이런 자리의 경쟁률은 해마다 크게 흔들려 참고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1명 뽑는 자리는 총원도 거의 안 돕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예비번호는 **번호 ÷ 모집 인원**으로 읽어야 하는데, 분모가 1이면 예비 1번도 총원을 100%가 필요합니다. 소수 모집은 **표면 숫자보다 실제로 더 좁습니다**.

Q.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보고 마감 직전에 넣으면 유리한가요?

넌리 쓰이는 방법이고, 그래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많은 지원자가 마감 직전에 넣습니다. 그래서 **마감 몇 시간 전의 숫자는 최종 경쟁률과 크게 다릅니다**. 낮아 보이던 곳이 마지막에 몰리는 일이 흔합니다.

게다가 실시간 경쟁률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끼리 같은 자리로 몰립니다. 낮아 보이는 자리에 다 같이 들어가니 **결과적으로 높아집니다**.

저희가 권해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쓸 자리는 미리 정해 두시고, 마감 직전 숫자는 순서를 바꾸는 데만 쓰십시오. 숫자를 보고 자리 자체를 갈아 끼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 급하게 고른 자리는 최저도 자격도 확인이 덜 됩니다.

한 줄로 남기면
경쟁률은 어려움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이 몰린 정도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요강에 실린 전년도 경쟁률과 공개 전형결과를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경쟁률은 신지 않습니다. 실질 경쟁률은 대개 공개되지 않아 방향만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28 · 숫자부터

뽑는 인원만큼 다시 돕니다

「예비 20번인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12월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생각보다 가능성이 큼니다. 수시 합격자는 여러 곳에 동시에 붙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여섯 장을 쓰고, 붙은 곳 가운데 한 곳만 갑니다. 나머지가 빈자리가 됩니다.

2026학년도 10,490줄의 총원율을 세어 보았습니다. 총원율은 **추가합격 인원 ÷ 모집 인원**입니다.

총원율	그런 곳의 비율	무슨 뜻인가
중앙값	75%	뽑는 인원의 75%만큼 더 돌았습니다
100%를 넘는 곳	33%	정원을 한 바퀴 넘게 다시 채웠습니다
200%를 넘는 곳	10%	두 바퀴 넘게 돌았습니다
추가합격이 없던 곳	17%	여기는 예비가 안 돕니다

세 곳 중 한 곳은 정원을 한 바퀴 넘게 다시 채웁니다. 100명을 뽑는 곳에서 예비 100번대도 붙었다는 뜻입니다. 「예비 20번이면 어렵겠지」는 근거가 약한 짐작입니다.

다만 17%는 한 명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비는 다 돈다」도 틀립니다. 갈래와 자리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대학 제출) 2026학년도 10,490줄을 저희가 집계. 총원 인원을 「명」 단위로 공개한 곳만 셉습니다.

29 · 어디가 많이 도나

갈래마다 크게 다릅니다

총원율은 갈래에 따라 몇 배씩 갈립니다.

갈래	총원율 중앙	까닭
학생부교과	122%	성적순이라 위쪽에 겹쳐 붙습니다
학생부종합	58%	대학마다 보는 것이 달라 덜 겹칩니다
논술	17%	고사일이 겹쳐 여러 곳에 못 붙습니다

교과가 압도적으로 많이 돕니다. 까닭이 뚜렷합니다. 교과는 내신 성적순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 여러 곳에 동시에 붙습니다. 그 학생이 한 곳을 고르면 나머지가 통째로 빈자리가 되고, 그것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논술은 반대입니다. 논술은 대학별고사를 직접 가서 치러야 합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고사일이 몇 날에 몰려 있어서 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논술 자리 자체가 적습니다. 중복 합격이 적으니 빈자리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십시오

교과에 지원했다면 예비번호를 넉넉히 보셔도 됩니다. 중앙값이 122%이니, 뽑는 인원만큼 다시 도는 것이 보통입니다.

논술은 반대로 보셔야 합니다. 중앙값이 17%입니다. 예비번호가 뒤쪽이면 기대를 접고 정시를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 2026학년도 집계. 갈래별 중앙값이며 학교·학과마다 크게 다릅니다.

30 · 언제 도는가

기다리는 동안의 일정

충원은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합니다.

차례	무슨 일	무엇을 하실 것
1	수시 최초 합격 발표	결과를 확인합니다
2	등록 기간 — 붙은 학생이 한 곳을 고릅니다	여기서 빈자리가 생깁니다
3	충원 합격 통보 — 여러 차례 합니다	전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4	충원 마감	여기서 끝납니다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차수는 전화로 통보하고 짧은 시간 안에 답을 받습니다. 못 받으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충원 기간에 지켜야 할 것

- ☐ 대학이 전화를 거는 기간 을 달력에 적어 둘 것
- ☐ 원서에 적은 전화번호 가 지금 쓰는 번호인지 확인할 것
- ☐ 그 기간에 모르는 번호를 받을 것
- ☐ 보호자 번호 도 함께 적어 둘 것
- ☐ 연락이 오면 바로 답할 수 있게 가족이 미리 정해 둘 것
- ☐ 등록 마감 시각 을 시간 단위로 확인할 것

해마다 전화를 못 받아 놓치는 학생이 나옵니다. 수업 중이거나 모르는 번호라 안 받아서입니다. 이건 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손해라 특히 아깝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수시에 최종 등록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충원으로 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둘면 갈 것인가**」를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전화가 온 자리에서 정하려 하면 몇 분 안에 3년을 정하게 됩니다.

출처: 각 대학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충원 합격 안내. 차수와 기간·방식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31 · 그래서 무엇을

원서 쓸 때 미리 하실 것

충원은 발표 뒤에 대응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서 쓸 때 정해집니다.

차례	언제	무엇을
1	원서 쓸 때	여섯 장의 순위를 가족이 정해 둡니다
2	원서 쓸 때	작년 충원율을 갈래별로 봅니다
3	발표 뒤	예비번호를 모집 인원과 견줍니다
4	충원 기간	전화를 받고 정해 둔 대로 답합니다

3번의 셈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비번호 하나만 보면 뜻이 없습니다. **모집 인원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100명 뽑는 곳의 예비 30번은 충원율 30%면 됩니다 — 교과라면 중앙값이 122%이니 **넉넉합니다**. 10명 뽑는 곳의 예비 30번은 충원율 300%가 필요합니다 — **10%만이 200%를 넘으니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같은 「**예비 30번**」이 전혀 다른 뜻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번호가 아니라 **번호 ÷ 모집 인원**이 자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번호를 받으신 뒤에 상담을 받으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하실 일은 둘뿐입니다 — **번호를 모집 인원으로 나눠 보는 것과 전화를 받는 것**. 둘 다 집에서 하십니다. 그 시기에 돈을 쓰셔야 한다면, 차라리 에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간은 갑니다. **정시 준비**

32 · 자주 묻는 것

충원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예비번호가 없으면 완전히 끝인가요?

불합격은 불합격입니다. 예비번호를 안 준 것은 충원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대학마다 예비번호를 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일부만 번호를 매기는 곳도 있고, 「충원 대상 아님」만 알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 대학의 안내를 정확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정시를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17%는 한 명도 돌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기다리기만 하면 정시 준비 기간을 잃습니다.

Q. 충원으로 붙으면 불리한가요?

전혀 아닙니다. 입학하면 최초 합격자와 완전히 같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고, 장학이나 학과 배정에서 불이익도 없습니다.

「추가로 붙었다」는 말 때문에 마음이 쓰이실 수 있는데, 앞의 숫자를 보시면 **충원이 예외가 아니라 보통입니다** — 교과는 중앙값이 122%입니다. 정원만큼 다시 도는 것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신경 쓰실 것은 하나뿐입니다. 등록 마감 시각을 넘기지 않는 것. 충원 차수는 시간이 짧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예비번호는 **번호가 아니라 비율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간에는 그 둘이 전부입니다. **전화를 받으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전형결과를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총원 인원과 예비번호는 실지 않습니다. 총원 절차와 기간은 대학마다 다르니 지원한 대학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추가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33 · 숫자부터

수학만 절반이 안 됩니다

「수학이 갑자기 무너졌어요.」

상담에서 「갑자기」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자리는 **대개 한두 학기 전에** 있고, 그 자리가 어디인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전국 숫자부터 보시겠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해마다 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2025년 결과입니다.

중3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
국어	64.5%	—
영어	60.5%	—
수학	49.6%	14.9%

국어와 영어는 열에 여섯이 보통학력을 넘습니다. **수학만 절반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에 못 미치는 학생이 **14.9%** — 작년 12.7%에서 늘었고, 이 평가가 표집으로 바뀐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25년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뜻있게 나빠진 항목은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고2에서는 수학 보통학력 이상이 **56.2%**로 올라갑니다.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많은 학생이 수학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사람만 세니 비율이 오른 것입니다.

이 숫자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수학은 다른 과목과 무너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 그런지 보시겠습니다.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6-06-23 발표). 표본 중3·고2 25,992명 / 539개교 (표집평가).

34 · 무엇이 다른가

수학만 앞을 모르면 뒤를 못 합니다

국어와 영어는 **지난 단원을 놓쳐도 이번 단원을 읽습니다.** 어휘가 부족하면 답답하지만 수업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수학은 다릅니다. **앞 단원이 다음 단원의 재료입니다.** 일차방정식을 모르면 이차방정식을 못 하고, 함수를 모르면 미분을 못 합니다. **한 번 비면 그 위에 아무것도 못 쌓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 — 무너진 자리와 성적이 떨어지는 시점이 다릅니다. 중2에서 비었는데 성적은 중3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갑자기」로 보입니다. 중3 진도를 아무리 봐 줘도 안 오르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 **고쳐야 할 자리가 거기가 아닙니다.**

둘 — 시간이 갈수록 메우는 비용이 커집니다. 한 단원이 비면 그 위의 여러 단원이 함께 흔들립니다. **비어 있는 기간이 길수록 무너진 면적이 넓어집니다.**

셋 — 학생이 되돌아가기를 싫어합니다. 고1이 중2 과정을 다시 보자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안은 채 앞으로만 갑니다.** 이것이 수학을 놓는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안 오른다」의 대부분이 이것입니다

지금 진도를 열심히 해도 **재료가 없으면 안 쌓입니다.** 공부량 문제가 아니라 **순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비었는지 찾는 것**입니다.

이 장의 설명은 저희 상담·수업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 장의 통계와 달리 **공시 자료로 뒷받침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35 · 세 자리

학년별로 갈리는 지점

저희가 상담에서 반복해 보는 자리는 셋입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저희 판단**이니 그렇게 읽어 주십시오.

언제	무엇이 바뀌나	여기서 갈리는 학생
중1 → 중2	문자와 식 — 숫자가 글자로 바뀝니다	계산은 되는데 식을 못 세우는 학생
중3 → 고1	양이 갑자기 늘니다 — 범위와 속도가 다릅니다	중학교 방식으로 다 풀어 보려는 학생
고1 → 고2	추상이 올라갑니다 —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외워서 버텨 온 학생

- 첫 자리 — 숫자가 글자가 될 때

초등 수학은 **계산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중등부터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 전환을 못 넘기면 「**계산은 잘하는데 문장제를 못 푸는**」 상태가 됩니다. **연산을 더 시켜도 안 고쳐집니다** — 다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 둘째 자리 — 양이 늘 때

고1 수학은 중3보다 **범위가 훨씬 넓고 진도가 빠릅니다**. 중학교에서는 문제를 다 풀어 보는 것이 가능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안 풀지**」를 정하는 **능력**이 여기서 처음 필요해집니다. 성실한 학생이 오히려 여기서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다.
- 셋째 자리 — 그림이 안 그려질 때

고2부터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다룹니다**. 그때까지 **유형을 외워 버텨 온 학생**은 여기서 한계에 닿습니다. 외울 유형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를 한 번도 안 물어본 대가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세 자리는 저희 수업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학생마다 다르며, 공시 통계로 뒷받침되는 구분이 아닙니다.

36 · 그래서 무엇을

찾는 차례와 점검표

수학에서 하실 일은 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차례	무엇을	어떻게
1	어디가 비었는지 찾습니다	지난 학년 단원평가를 다시 풀립니다
2	비어 있는 가장 앞 단원부터 메웁니다	뒤가 아니라 앞부터입니다
3	지금 진도는 줄여서 이어 갑니다	멈추면 새 구멍이 생깁니다
4	한 달 뒤 다시 풀려 봅니다	메워졌는지는 이걸로만 압니다

2번이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대개 가장 최근에 틀린 단원부터 손대십니다. 그런데 그 단원이 안 되는 까닭이 더 앞에 있으면 헛일이 됩니다. **비어 있는 가장 앞 자리부터** 메우십시오.

3번도 중요합니다. 앞을 메우려고 지금 진도를 멈추면 **학교 시험이 무너지고 새 구멍이 생깁니다.** 진도를 줄여서 이어 가면서 앞을 메우는 것이 맞습니다.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지난 학년 문제를 **지금 다시 풀 수 있는가**
- ☐ 식을 세우는 것 과 계산하는 것 중 어디서 막히는가
- ☐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 맞히는가
- ☐ 모르는 문제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 ☐ 풀이를 **말로 설명** 할 수 있는가
- ☐ 「이건 어떤 유형」이라고 **이름으로만** 접근하고 있지 않은가
- ☐ 한 달 전에 배운 것을 **지금 풀 수 있는가**
- ☐ 진도를 **이해 속도보다 빠르게** 나가고 있지 않은가

다섯 번째가 가장 정확한 잣대입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것이고, 못 하면 외운 것**입니다. 외운 것은 시험에서 조금만 비틀리면 무너집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학원은 시간을 늘리자고 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앞에 있으면 **지금 진도를 두 배로 해도 안 채워집니다.** 먼저 **어디가 비었는지** 찾으십시오. 그 진단은 지난 학년 문제집 한 권이면 됩니다.

37 · 자주 묻는 것

수학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선행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은 **앞으로** 나가는 일이고, 지금 문제는 **뒤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비어 있는 채로 앞으로 나가면 **비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선행이 만드는 부작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교에서 처음 배울 때 「아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훑어 본 정도인데 낯설지 않아서, 가장 집중해야 할 그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기준을 하나 드리면 — 지금 하는 진도를 한 달 뒤에 다시 풀 수 있으면 선행이고, 안 풀리면 훑은 것입니다. 훑고 있다면 속도를 줄이고 뒤를 메우십시오.

Q. 문제를 많이 풀면 늘지 않나요?

어느 단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부터는 안 그렇습니다.

양이 듣는 것은 이미 이해한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때입니다. 이해가 안 된 것을 많이 풀면 **유형을 외우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처음 보는 모양**이 나올 때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구분하는 법이 있습니다. **틀린 문제를 아무것도 안 보고 다시 풀어 보십시오.** 풀리면 이해한 것이고, 해설을 봐야 풀리면 외운 것입니다.

외운 쪽이라면 **양을 늘리는 것보다 한 문제를 설명하게 하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지루하지만 그렇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수학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떨어진 시점이 아니라 비어 있는 자리를 찾으십시오. 대개 한두 학기 앞에 있습니다.

이 자료의 통계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2025) 결과이며, 학년별 갈림 지점과 대응 방법은 저희 수업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학생마다 다르므로 일반화하지 마십시오.

38 · 숫자부터

못 막아 둔 자리가 있습니다

「미적분 해야 하나요, 확률과통계 해도 되나요.」

고1 겨울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어디에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 있고, 그건 요강에 적혀 있습니다. 추측하지 마시고 세어 보십시오.

2027학년도 수시 요강에서 수능최저 문장이 수학을 「미적분/기하」로 못 막은 자리를 세어 보았습니다.

무엇	얼마나
최저 문장에 미적분·기하 지정이 있는 줄	272줄
그런 조건을 둔 대학	15개
자연계열 자리 가운데 비율	7%

자연계 자리의 7%입니다.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그러니 안 해도 된다」로 읽으시면 위험합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 — 이건 최저 문장에서만 센 것입니다. 수능최저가 아니라 반영 방법 쪽에 지정을 둔 곳은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지정이 걸리는 자리는 이보다 많습니다.

둘 — 지정이 걸린 자리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15개 대학에 몰려 있습니다. 골고루 퍼진 7%가 아니라 특정 대학에 뭉친 7%입니다. 입니다.목표가 그 안에 있으면 100%이고, 밖에 있으면 0%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482줄의 수능최저 문장을 저희가 집계. 반영 방법에 둔 지정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목표 대학의 요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39 · 무엇이 다른가

지정·가산·아무 조건 없음

대학이 수학 선택과목을 다루는 방식은 세 갈래입니다.

방식	요강의 말	확률과통계 선택자에게
지정	「수학(미적분/기하)」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가산점	「미적분·기하 응시자 ○% 가산」	지원은 되지만 점수에서 밀립니다
제한 없음	「선택과목 제한 없음」	차이가 없습니다

이 셋은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지정은 문이 닫히는 것이고, 가산점은 문은 열려 있으나 언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적분 안 하면 불리하다」는 말은 어느 쪽인지 밝히지 않으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가산점은 얼마나 무거운가

가산 비율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요강에 적힌 값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산이 붙는 대상도 확인하십시오 — 수학 점수에만 붙는 곳이 있고 총점에 붙는 곳이 있습니다.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표에 없는 네 번째가 있습니다

탐구 지정입니다. 수학은 제한이 없는데 탐구를 과학으로 못 박는 곳이 있습니다. 의약학 계열에 특히 그렇습니다. 수학만 보고 안심하시면 탐구에서 걸립니다. 최저 문장을 끝까지 읽으십시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가산 비율과 적용 대상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40 ·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점수와 문의 크기

선택은 결국 둘을 저울에 다는 일입니다.

저울의 한쪽	물을 것
문의 크기	미적분을 하면 더 열리는 자리가 내 목표 안에 있는가
점수	미적분으로 지금보다 나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미적분은 확률과통계보다 대체로 어렵고 공부량이 많습니다. 미적분으로 4등급을 받느니 확률과통계로 2등급을 받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보았듯 수능최저는 등급 합으로 셉니다 — 과목 이름이 아니라 등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차례	무엇을	왜
1	목표 대학·학과를 대여섯 곳 적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2	그 요강에 지정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3	지정이 없으면 가산이 있는지 봅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잹니다
4	둘 다 없으면 등급이 잘 나오는 쪽을 고릅니다	그게 유일한 잣대가 됩니다

2번에서 대개 답이 나옵니다. 의약학이나 특정 공학 계열을 목표로 하신다면 지정이 걸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 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문·사회·상경 계열이 목표**라면 미적분이 이득이 되는 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 시간을 다른 영역에 쓰시는 편이 최저 충족에 유리합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저율질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41 · 그래서 무엇을

고르는 점검표

고1 겨울이나 고2 초에 **한 번만 정확히**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선택과목을 정하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목표 대학·학과를 **대여섯 곳 적어** 두었는가
- ☐ 그 요강의 **수능최저 문장** 을 직접 읽었는가
- ☐ 반영 방법 쪽에도 지정이 없는지 보았는가
- ☐ 지정이 아니라 **가산점** 이라면 비율이 얼마인가
- ☐ 가산이 **수학에만** 붙는지 **총점에** 붙는지 확인했는가
- ☐ 탐구 지정 도 함께 확인했는가
- ☐ 미적분으로 **어느 등급** 이 나올지 가늠해 보았는가
- ☐ 정시까지 생각한다면 **정시 요강도** 보았는가

여덟 번째를 잊지 마십시오. 수시와 정시의 선택과목 조건이 다른 대학이 있습니다. 수시만 보고 정했다가 정시에서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적분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하는 쪽을 **조심하십시오**. 미적분 수업은 길고 비싸서 학원이 권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신 대로 **지정이 걸린 자리는 정해져 있고**, 그 밖에서는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이 낫습니다**. 목표 대학 **요강 대여섯 개만 읽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건 한 시간이면 하시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42 · 자주 묻는 것

선택과목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아직 목표 대학이 없는데 어떻게 정하나요?

그럴 때는 **계열로 정하십시오**. 대학은 몰라도 **이과인지 문과인지**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이공계·의약학을 볼 가능성이 있다면 미적분 쪽을 권합니다. 지정이 걸린 자리가 그쪽에 몰려 있고, **나중에 목표가 생겼을 때** 문이 닫혀 있지 않게 해 둡니다.

인문·사회·상경이 분명하다면 확률과통계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시간을 국어나 탐구에 쓰시는 편이 최저 충족에 유리합니다.

정말 모르겠다면 **한 학기만 미적분을 해 보고** 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고2 중반을 넘기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 진도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고1 겨울에 한 번 정하시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Q. 미적분이 표준점수에서 유리하다던데요?

해마다 다르고,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선택과목 사이의 표준점수 차이는 **그해 응시자 집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려운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이 몰리면 그 과목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오는 구조인데, 누가 몰릴지는 **시험 전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점수가 유리하니까**」를 선택의 첫 이유로 삼지 마십시오. 그건 결과를 보고 나서야 아는 이야기이고, **그 이득은 등급이 흔들리면 통째로 사라집니다**.

확실한 것은 둘뿐입니다. **요강에 적힌 지정과 가산**, 그리고 **내가 어느 과목에서 더 나은 등급을 받는가**. 이 둘로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줄로 남기면

선택과목은 **유행이 아니라 요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목표 대학 요강 대여섯 개를 읽으면, 고민이 대개 사라집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집계한 것입니다. 집계는 수능최저 문장에서 센 값이라 **실제 지정 자리는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개별 대학의 조건은 신지 않았으니 반드시 요강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특정 과목이 유리하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43 · 숫자부터**고2에서 오히려 내려갑니다**

「국어는 한국말인데 왜 안 오를까요.」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공부법이 없는 과목**」으로 여겨져 가장 늦게 손대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과목**일 수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입니다.

과목	중3	고2	어떻게 움직였나
국어	64.5%	53%	내려갔습니다
영어	60.5%	72.8%	올라갔습니다
수학	49.6%	56.2%	올라갔습니다

세 과목 가운데 국어만 내려갑니다. 중3 64.5%에서 고2 53%로 떨어집니다.

수학과 영어가 올라간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놓은 학생이 빠져서인** 면이 큼니다. 그런데 **국어는 아무도 놓지 않습니다**. 모두가 끝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실제 사정에 가깝습니다** — 그리고 그 숫자가 내려갑니다.

까닭은 **고등학교 국어가 중학교 국어와 다른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보시겠습니다.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6-06-23 발표). 표본 중3·고2 25,992명 / 539개교 (표집평가). 감소 폭의 해석은 저희 판단입니다.

44 · 무엇이 다른가

읽는 것에서 재는 것으로

중학교 국어는 글을 이해했는가를 묻습니다. 고등학교 국어, 특히 수능 국어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처리했는가를 묻습니다. 이해력 시험이 아니라 처리 시험에 가깝습니다.

영역	무엇을 재나	여기서 막히는 학생
독서	처음 보는 낯선 글을 시간 안에 처리	천천히 읽으면 이해하는 학생
문학	정해진 해석의 틀로 읽기	자기 느낌으로 읽는 학생
화법과작문	글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	대개 여기서 시간을 법니다
언어와매체	문법 지식 — 아는가 모르는가	안 외운 학생

「국어는 공부법이 없다」가 틀린 까닭

영역마다 막히는 이유가 다르고 대응도 다릅니다. 그런데 대개 「국어 공부」라는 한 덩어리로 다루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고쳐야 할지 모른 채 문제만 풀니다.

언어와매체는 외우면 오릅니다. 지식 문제입니다. 가장 빨리 오르는 영역입니다. 문학은 틀을 익히면 오릅니다. 작품마다 다르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독서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대개 여기서 등급이 정해집니다.

독서가 안 되는 두 가지 경우

시간이 모자란 경우와 시간을 줘도 안 되는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이 둘을 가르지 않고 문제만 더 푸는 것이 가장 흔한 낭비입니다.

가르는 법은 간단합니다. 틀린 지문을 시간 제한 없이 다시 읽고 풀어 보십시오. 그때 풀리면 속도 문제이고, 안 풀리면 이해 문제입니다. 둘은 처방이 정반대입니다.

이 장의 구분은 저희 수업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시 통계로 뒷받침되는 분류가 아닙니다.

45 · 둘로 갈라 대응합니다

속도인가 이해인가

	속도가 문제일 때	이해가 문제일 때
증상	시간을 주면 풀립니다	시간을 줘도 안 풀립니다
원인	읽는 방식이 안 잡혔습니다	글의 재료 가 부족합니다
할 것	구조를 표시하며 읽는 훈련	배경지식과 어휘 를 늘리는 일
기간	몇 달	더 길니다
문제 양	양이 들습 니다	양이 덜 들습니다

맨 아랫줄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문제인 학생에게 문제를 더 풀리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모르는 채로 답만 맞히는 연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문제라면 — 표시하며 읽기

독서 지문은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는 글인지, 대비되는 것이 무엇인지, 조건이 어디에 붙는지. **읽으면서 표시해 두면 문제를 풀 때 되돌아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훈련의 잣대는 「**같은 지문을 다시 볼 때 어디를 볼지 바로 아는가**」입니다. 그게 되면 속도가 붙습니다.

이해가 문제라면 —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아셔야

이 경우 **고3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배경지식과 어휘는 몇 달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현실적인 선택은 둘입니다. **국어에서 목표 등급을 낮추고 다른 영역으로 최저를 맞추는 것, 또는 국어 비중이 작은 자리를 고르는 것입니다.** 앞서 보셨듯 수능최저의 대부분은 **영역을 골라서 썩니다** — **1,844줄이 2개 영역만 봅니다.** 국어를 안 넣고도 맞출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최저 조건). 대응 방법은 저희 판단입니다.

46 · 그래서 무엇을

가르는 차례와 점검표

국어는 진단이 절반입니다.

차례	무엇을	어떻게
1	영역별로 점수를 나눠 봅니다	독서·문학·화작·언매 따로
2	가장 많이 잃는 영역을 찾습니다	대개 독서입니다
3	독서가 속도인지 이해인지 가릅니다	시간 없이 다시 풀려 봅니다
4	거기에 맞는 것만 합니다	처방이 정반대입니다
5	언어와매체를 먼저 채웁니다	가장 빨리 오릅니다

5번을 먼저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문법은 외우면 오르는 영역이라 가장 짧은 시간에 점수가 됩니다. 독서를 붙들고 있는 동안 여기서 몇 문제를 확보해 두면 등급이 한 칸 움직이는 일이 있습니다.

국어를 손보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모의고사를 **영역별로 나눠** 채점해 보았는가
- ☐ 어느 영역에서 **가장 많이 잃는지** 아는가
- ☐ 독서에서 **시간이 모자라는가** , **시간을 줘도 안 되는가**
- ☐ 틀린 지문을 **다시 읽어** 보았는가
- ☐ 모르는 **낱말** 을 그때 찾아보는가
- ☐ **문법** 을 한 번이라도 정리해 본 적이 있는가
- ☐ 문학을 **자기 느낌** 으로 읽고 있지 않은가
- ☐ 문제를 **양으로만** 풀고 있지 않은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안 가르고 시작하면 몇 달을 헛되이 씁니다.** 모의고사 한 회로 십 분이면 확인하십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 등급이 안 오를 때 강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흔한 대응이고, 대개 효과가 작습니다.** 국어는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읽는 시간에 늘어납니다. 강의를 하나 더 들으면 읽을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먼저 어느 영역에서 왜 잃는지 가르십시오. 그 진단은 모의고사 한 회면 됩니다.

47 · 자주 묻는 것

국어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책을 많이 읽으면 국어 등급이 오르나요?

길게 보면 도움이 되고, 짧게 보면 잘 안 듣습니다.

수능 국어는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하는 시험입니다. 책을 즐겨 읽는 학생이 천천히 깊게 읽는 습관만 갖고 있으면 오히려 시간에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다만 이해가 문제인 학생에게는 읽기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휘와 배경지식은 다른 방법으로 빨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의 진단이 먼저입니다 — 속도 문제인지 이해 문제인지에 따라 「책을 읽으라」는 조언이 맞는 말이 되기도 하고 시간 낭비가 되기도 합니다.

초등·중등이라면 읽기가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고3이라면 기출 지문으로 읽는 편이 낫습니다.

Q. 국어를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 집중해도 되나요?

수능최저만 보면 가능합니다. 앞서 보신 대로 최저 조건의 대부분이 영역을 골라서 셉니다. 1,844줄이 2개 영역만 봅니다 — 국어를 빼고 셀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다만 둘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정시는 다릅니다. 정시는 대개 모든 영역을 반영합니다. 국어를 놓으면 정시 선이 크게 내려갑니다. 수시만 보고 정하면 안 됩니다.

둘째, 「포기」와 「비중을 줄인다」는 다릅니다. 아예 놓으면 등급이 계속 내려가고, 그러면 고를 수 있는 조합 자체가 줄어듭니다. 4등급을 유지하는 것과 6등급으로 내려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국어는 공부법이 없는 과목이 아니라 **영역마다 처방이 다른 과목**입니다. 어디서 왜 잃는지부터 가르십시오.

이 자료의 통계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2025)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입니다. 영역별 대응 방법은 저희 수업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며 학생마다 다릅니다. 이 자료는 성적 향상이나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8 · 숫자부터**수시에서 영어는 거의 언제나 셀 수 있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라 부담 없죠?」

절반만 맞습니다. 등급을 받기는 상대적으로 쉽고, 그래서 더 중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쉽게 받는 등급이라 못 받으면 그만큼 크게 밀립니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에서 쓰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수시입니다. 2027학년도 요강의 수능최저 조건 가운데 **규칙으로 읽어 낸 2,908줄**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엇	얼마나
영어가 고를 수 있는 영역에 들어 있는 줄	94%
영어로 따로 등급 조건을 건 줄	105줄

거의 모든 최저 조건에서 영어를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의 대부분은 「**몇 개 영역을 골라 등급 합**」 방식입니다 — 1,844줄이 2개 영역만 봅니다.

이 둘을 합치면 결론이 나옵니다. **영어 1등급은 최저 조건의 절반을 혼자 채웁니다**. 2개 영역 조건에서 영어가 1이면 나머지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강한 학생은 최저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반대로 영어가 3~4등급이면 **다른 두 과목에서 그만큼을 메워야** 합니다. 「절대평가라 부담 없다」가 아니라 「절대평가라 확보해 두어야 한다」가 맞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482줄 가운데 최저 문장을 규칙으로 옮긴 2,908줄을 저희가 집계.

49 · 정시는 다릅니다

대학마다 셈이 따로입니다

수시 최저에서 영어는 **등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시에서는 **등급 사이의 거리가 대학마다 다릅니다.**

방식	어떻게	영어 가 갖는 무게
반영 비율에 포함	다른 영역과 함께 %로 셉니다	비율만큼 큼니다
총점에 가·감산	비율에서 빼고 점수를 더하거나 뺍니다	대학이 정한 표만큼

두 번째 방식에서 **대학 간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2025학년도의 예를 들면, 어느 대학은 **2등급에 0.5점**을 깎았고, 어느 대학은 **1등급 100점·2등급 98점·3등급 95점**으로 매겼습니다.

같은 2등급인데 **한 곳에서는 거의 손해가 없고 다른 곳에서는 뚜렷하게 밀립니다.** 영어 등급 하나로 지원할 대학이 갈리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십시오

영어가 1등급이면 — 영어를 비중 있게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합니다. 남들이 잃는 자리에서 나는 안 잃습니다.

영어가 2~3등급이면 — 감점이 작은 대학을 찾으셔야 합니다. 같은 성적으로 **환산 총점이 달라집니다.**

이건 공부가 아니라 조사로 얻는 이득입니다. 요강의 영어 환산표를 **목표 대학 몇 곳만 건뵈 보시면** 바로 보입니다.

출처: 2025~2026학년도 대학별 영어 등급 반영 방식에 관한 보도를 예로 든 것입니다. **대학·연도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실제 값은 지원 연도 정시 요강의 환산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50 · 무엇이 다른가

절대평가가 만든 것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Q. 하나 — 남과 견주지 않습니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입니다. 몇 명이 받은 상관없습니다. 상대평가처럼 「앞에 몇 명이 있느냐」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합니다. 90점을 넘기면 됩니다. 다른 과목처럼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이 영어의 가장 큰 이점입니다 — 목표가 눈에 보입니다.

Q. 둘 — 등급 사이가 넓습니다

10점 단위로 등급이 갈립니다. 1점 차이로 등급이 바뀌는 일이 적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한 등급을 올리려면 10점을 올려야 합니다. 88점에서 90점은 가깝지만, 82점에서 90점은 멀니다. 지금 점수가 등급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투자할지 말지를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셋 — 그래서 「기본」이 되었습니다

받기 쉬운 등급이 되면서 많은 학생이 확보합니다. 그러면 못 받은 학생만 눈에 띕니다.

영어 1등급은 더해 주는 점수가 아니라 안 깎이는 자리에 가까워졌습니다. 「잘하면 이득」이 아니라 「못하면 손해」인 과목이 된 것입니다.

다만 해마다 난이도가 크게 흔들립니다. 1등급 비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간 해도 있었습니다. 「절대평가니까 늘 쉽다」로 계획을 세우시면 위험합니다.

1등급 비율에 관한 언급은 보도된 수치를 근거로 한 것이며, 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나머지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51 · 그래서 무엇을

정하는 차례와 점검표

영어는 얼마나 투자할지를 정하는 것이 공부 방법보다 먼저입니다.

차례	무엇을	왜
1	지금 원점수가 몇인지 봅니다	등급이 아니라 점수로
2	다음 등급까지 몇 점인지 셉니다	2점과 8점은 다릅니다
3	목표 자리의 최저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지 봅니다	대개 쓸 수 있습니다
4	정시를 본다면 환산표를 견줍니다	대학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5	그다음에 시간을 배분합니다	여기까지가 판단입니다

2번이 실전에서 가장 값집니다. 등급 경계에서 2~3점 모자란 학생에게 영어는 가장 효율이 높은 과목입니다. 조금만 채우면 등급이 올라가고, 그 등급이 최저를 통째로 바꿉니다.

반대로 다음 등급까지 8점 이상 남았다면 그 시간을 다른 영역에 쓰는 편이 최저 충족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대해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지금 원점수 가 몇 점인지 아는가
- ☐ 다음 등급까지 몇 점 남았는지 세어 보았는가
- ☐ 틀리는 문제가 어느 유형 에 몰려 있는가
- ☐ 듣기 에서 읽고 있지 않은가 — 가장 채우기 쉬운 자리입니다
- ☐ 목표 자리의 최저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가
- ☐ 영어에 따로 등급 조건 을 건 곳은 아닌가
- ☐ 정시 환산표 를 목표 대학끼리 견줘 보았는가
- ☐ 영어에 쓰는 시간이 얻는 것에 비해 많지 않은가

네 번째를 꼭 보십시오. 듣기는 채우기 가장 쉬운 자리인데 놓치는 학생이 많습니다. 여기서 두세 문제를 확보하면 등급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1등급이 안정된 학생에게 영어 수업을 더 권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라 1등급 위가 없습니다. 더 올려도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 시간은 등급이 흔들리는 다른 과목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영어는 확보한 뒤에는 유지만 하면 됩니다.

52 · 자주 묻는 것

영어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1등급과 2등급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세 자리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수시 최저에서 — 큼니다. 대부분의 최저가 등급 합으로 세니 영어 1과 2는 합에서 1이 차이납니다. 앞서 보셨듯 합이 한 칸 달라지면 쓸 수 있는 자리가 20%p쯤 달라집니다.

정사에서 — 대학마다 다릅니다. 2등급에 0.5점만 깎는 곳도 있고 뚜렷하게 밀리는 곳도 있습니다. 목표 대학의 환산표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

영어로 따로 조건을 건 자리에서는 — 결정적입니다. 「영어 2등급 이내」 같은 조건이면 3등급은 그 자리에서 탈락입니다.

Q. 절대평가인데 왜 학원을 다녀야 하나요?

안 다녀도 되는 학생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어는 목표가 눈에 보이는 과목입니다. 90점을 넘기면 됩니다. 지금 몇 점인지, 어디서 틀리는지가 명확하면 혼자 채울 수 있는 부분이 큼니다.

도움이 되는 경우는 대개 둘입니다. 기초 문법과 어휘가 비어 있어 혼자서는 어디부터 할지 모를 때, 그리고 혼자서는 안 하게 될 때입니다. 뒤통수도 진짜 이유입니다.

다만 1등급이 안정된 뒤에도 계속 다니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등급 위가 없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영어는 **잘해서 버는 과목이 아니라 확보해 두는 과목**입니다. **지금 원점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거기서 판단이 나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와 대학별 영어 반영 방식에 관한 보도(2025~2026)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시 환산 방식은 대학·연도마다 다르므로 **예시**로만 실었습니다. 지원 전에는 목표 대학의 최신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53 · 숫자부터

대부분 한 과목만 셉니다

「탐구 두 과목을 다 잘해야 하나요?」

대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두 과목을 고르게 붙들다가 **둘 다 어정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대학이 탐구를 어떻게 세는지부터** 보십시오. 요강에 적혀 있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 요강에서 **최저 문장을 규칙으로 읽어 낸 2,908줄**이 탐구를 어떻게 세는지 나눠 보았습니다.

세는 법	줄	비중	무슨 뜻인가
1과목	2,356	84%	잘 본 하나만 씁니다
2과목 평균	388	14%	두 과목을 평균 씁니다
2과목	72	3%	둘 다 조건을 봅니다

84%가 한 과목만 셉니다. 이것이 탐구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한 과목만 셉다면 두 과목을 고르게 하는 것보다 **하나를 확실하게**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1등급 하나와 3등급 하나가 2등급 둘보다 유리한 조건이 많다는** 뜻입니다.

다만 「2과목 평균」이 14%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목표 자리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전략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합니다.요강을 먼저 보셔야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수능최저 문장을 규칙으로 옮겨 저희가 집계. 2,908줄 가운데 탐구를 세는 방식이 밝혀진 것만 셧습니다.

54 · 과탐인가 사탐인가

지목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음 물음은 과탐이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도 요강이 정합니다.

요강이 무어라 하나	줄	무슨 뜻인가
과탐만 지목	525	사탐으로는 못 채웁니다
사탐도 됨	1,952	「사/과탐 중」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탐도 되는 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과탐만 지목하는 자리가 어디인지가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의약학과 일부 이공계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그 안에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밖에 있으면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 확인 하나로 고민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사탐이 유리하다는 말에 대해

「사탐이 등급 받기 쉽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저희는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과목 사이 유불리는 그해 응시자 집단이 정합니다. 누가 어느 과목에 몰릴지는 시험 전에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둘뿐입니다. 요강이 과탐을 지목했는가, 그리고 내가 어느 과목에서 더 나은 등급을 받는가. 이 둘로 정하시면 나중에 후회가 적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최저 문장 집계. 반영 방법 쪽 지정은 포함하지 않았으니 실제 지목 자리는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55 · 그래서 어떻게 고르나

세 가지 짜임

탐구 두 과목을 고르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셋입니다.

짜임	어떻게	어떤 학생에게
하나에 몰기	주력 하나 + 부담 적은 하나	1과목만 세는 자리를 볼 때
둘 다 고르게	둘을 비슷한 무게로	2과목 평균을 보는 자리를 볼 때
연결해서 고르기	내용이 이어지는 두 과목	공부 시간을 아끼려 할 때

셋째 짜임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탐구 과목 가운데는 내용이 겹치거나 이어지는 짝이 있습니다. 그런 짝을 고르면 한 과목을 공부한 것이 다른 과목에 그대로 쓰입니다. 두 과목을 하는데 한 과목 반쯤의 시간이 드는 셈입니다.

반대로 성격이 아주 다른 두 과목을 고르면 공부 방식을 두 벌 갖춰야 합니다. 시간이 그만큼 더 듭니다.

다만 이어지는 짝이라고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한쪽이 어려워지면 둘이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위험을 나누려면 오히려 다른 성격의 과목이 낫습니다.

바꾸려면 언제까지인가

탐구는 다른 영역보다 바꾸기가 쉬운 편입니다.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고3 여름을 넘기면 위험합니다. 바꾸신다면 고2 겨울이나 고3 봄까지가 무난합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과목 짜임에 대한 설명은 저희 수업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56 · 그래서 무엇을

정하는 차례와 점검표

순서를 지키면 고민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차례	무엇을	어디서
1	목표 자리가 과탐을 지목하는지 봅니다	최저 문장 + 반영 방법
2	몇 과목을 세는지 봅니다	1과목인가 2과목 평균인가
3	거기에 맞게 무게를 나눕니다	몰기인가 고르게인가
4	정시도 본다면 정시 조건도 봅니다	수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번에서 전략이 갈립니다. 1과목만 세는 자리를 주로 보신다면 — 하나에 힘을 몰아 **확실한 1등급**을 만드십시오. 다른 하나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덜 쓰는 것입니다.

2과목 평균을 보는 자리라면 — 한 과목이 크게 무너지면 평균이 무너집니다. 이때는 고르게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탐구 과목을 정할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목표 자리가 **과탐을 지목** 하는가
- ☐ 최저가 **몇 과목** 을 세는가
- ☐ **평균** 인지 **택1** 인지 확인했는가
- ☐ 「탐구 2과목만으로는 최저를 못 맞춘다」는 **단서 조항** 이 없는가
- ☐ 두 과목이 **내용상** 이어지는가
- ☐ 학교에서 그 과목을 **개설**하는가
- ☐ 정시 조건도 **함께** 보았는가
- ☐ 지금 바꾸기에 **시기가 늦지** 않았는가

네 번째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탐구 2과목만으로 최저를 맞출 수 없음」이라고 못 박은 요강이 있습니다. 탐구를 아무리 잘 봐도 **국·수·영** 가운데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구 두 과목을 다 학원에서 하실 필요는 **대개 없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84%가 한 과목만 셉니다**. 주력 하나를 제대로 하시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 강의나 혼자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과목을 똑같이 붙들다가 둘 다 **어정쩡해지는 것**이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57 · 자주 묻는 것

탐구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II과목을 해야 유리한가요?

대부분의 자리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수능최저는 **등급**으로 썩니다. 과목 이름이 아니라 등급이 들어갑니다. **II과목으로 3등급을 받느니 I과목으로 1등급을 받는 편이** 최저에는 유리합니다.

II과목이 필요한 자리는 **요강이 지목한 곳**입니다. 일부 대학·학과가 특정 조합을 요구하거나 가산을 둡니다. 그런 곳은 **요강에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II과목을 하면 성실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수능 성적표에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학종에서 생활기록부의 과목 선택은 읽히지만, 그건 **수능 응시 과목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Q.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과목을 골라도 되나요?

수능 응시 과목은 학교 개설과 무관하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해야 한다는 부담**이 붙습니다.

그리고 **학종을 함께 보신다면**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종은 **생활기록부에 적힌 과목 선택**을 봅니다. 수능은 화학으로 보는데 학교에서는 화학을 안 들었다면, **서류에서 그 관심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에서 듣는 과목과 맞추시는 편이** 낫습니다. 맞추기 어렵다면 **수능은 수능대로, 학종은 학종대로**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두 전형에 같은 전략을 쓰려다 **둘 다 어긋나는 일**이 흔합니다.

한 줄로 남기면

탐구는 어느 과목이 유리한가가 아니라 **요강이 몇 과목을 어떻게 세는가**로 정하는 것입니다. **요강 한 줄이 두 해의 공부 방향**을 정합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최저 문장을 집계한 것입니다. 반영 방법 쪽 지정은 포함하지 않아 **실제 조건은 이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개별 대학의 조건은 신지 않았으니 요강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특정 과목이 유리하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58 · 숫자부터

자연계 논술이 더 많습니다

「논술은 글 잘 쓰는 애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절반만 맞습니다. **자연계 논술은 글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풀이 과정을 **글로 적는 수학 시험**이라고 보시는 편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자리 수로 보면 **인문 논술보다 많습니다**.

2027학년도 논술 **1,033줄**을 계열로 나눠 보았습니다.

계열	줄	모집 인원	경쟁률 중앙
자연	577	5,554명	31.2:1
인문	438	3,288명	45:1

자연계 자리가 더 많고, 경쟁률은 더 낮습니다. 인문 논술 45:1 에 견주어 자연은 31.2:1 입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수리논술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인문 논술은 글을 쓸 줄 알면 일단 써 보는 학생이 많은데, 수리논술은 **풀 수 없으면 백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 스스로가 걸러집니다**.

이것이 수리논술의 성격을 말해 줍니다. 「해 볼까」로 접근하는 시험이 아니라 「**되는지 확인하고 쓰는**」 시험입니다. 뒤에서 그 확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논술 전형 1,033줄(32개 대학)을 저희가 집계. 경쟁률은 전년도 값의 중앙값입니다.

59 · 무엇이 다른가

내신 시험과 수리논술

같은 수학이지만 묻는 방식이 다릅니다.

	내신·수능 수학	수리논술
답	숫자 하나	풀이 전체
채점	맞다·틀리다	과정에 점수가 있습니다
시간	한 문제 2~3분	한 문제 20~30분
문항 수	20~30문항	서너 문항
필요한 것	빠른 판단	끝까지 밀고 가는 힘

「과정에 점수가 있다」가 무슨 뜻인가

답이 틀려도 중간까지 맞으면 그만큼 받습니다. 거꾸로 답이 맞아도 과정을 못 적으면 깎입니다.

이 차이가 만드는 결과가 있습니다. 수리논술은 백지가 잘 안 나옵니다. 끝까지 못 풀어도 손댄 만큼은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완벽히 풀 수 있어야 쓴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가 실제 잣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에게 맞습니다

한 문제를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을 견디는 학생입니다. 20분 동안 한 문제를 보고 있어야 하는데, 3분 만에 답이 안 보이면 넘기는 습관이 든 학생에게는 이 시험이 몹시 괴롭습니다.

반대로 내신 수학에서 시간이 모자라 손해를 보던 학생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느리지만 깊게 가는 학생이 이 시험에서 제 값을 받습니다.

출처: 각 대학 2027학년도 논술 안내 및 기출. 문항 수·시간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60 · 누가 쓰는가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수리논술이 내 자리인지는 세 가지로 가릅니다.

Q. 하나 — 기출을 한 번 써 보았는가

이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내신 2등급인데 안 맞는 학생이 있고, 4등급인데 잘 맞는 학생이 있습니다.

목표 대학 기출을 시간을 재고 한 번 써 보십시오. 기출은 대학 홈페이지에 **해설과 함께** 공개되어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보실 것은 「맞았는가」가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가**」입니다.

Q. 둘 — 수능최저를 넘길 수 있는가

논술의 73%가 수능최저를 겁니다. 논술을 아무리 잘 봐도 최저를 못 넘기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최저를 먼저 세어 보고, 그다음에 논술을 준비하십시오.** 거꾸로 하면 **논술 준비에 쓴 시간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거꾸로 보면 이건 기회이기도 합니다. 최저에서 걸러지는 지원자가 많아서 **실질 경쟁률은 표면보다 크게 낮습니다.**

Q. 셋 — 고사일에 갈 수 있는가

논술은 **직접 가서 치릅니다.** 그런데 고사일이 며칠에 몰려 있습니다. **쓰고 싶은 곳 둘이 같은 날이면 하나는 버립니다.**

그러니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달력부터 펴 보십시오.** 갈 수 있는 날이 둘뿐인데 세 곳을 준비하는 것은 **시간을 버리는 일**입니다.

셋이 다 「예」면 수리논술은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면 **그 시간을 다른 곳에 쓰시는 편이** 낮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판단 기준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61 ·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는 차례와 점검표

수리논술 준비는 순서를 지키면 시간이 훨씬 적게 듭니다.

차례	무엇을	언제
1	최저를 세어 봅니다	가장 먼저
2	기출을 한 번 써 봅니다	그다음
3	달력에 고사일을 찍습니다	원서 전
4	대학을 둘셋으로 좁힙니다	준비 시작 전
5	그 대학 기출만 반복합니다	준비 기간 내내

5번이 핵심입니다. 수리논술은 대학마다 출제 색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여러 대학 문제를 조금씩 보는 것보다 **한두 대학 기출을 여러 해치** 보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범위와 방식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답만 맞히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과정에 점수가 있는 시험이니 「어떻게 적었는가」를 **봐야** 합니다. 대학이 공개한 **예시 답안**과 자기 답안을 나란히 놓고 견주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연습입니다.

수리논술을 준비하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목표 자리의 **수능최저** 를 세어 보았는가
- ☐ 그 최저를 **넘길 수 있는가**
- ☐ 기출을 **시간을 재고** 한 번 써 보았는가
- ☐ 한 문제를 **20분 붙들고** 있을 수 있었는가
- ☐ **고사일** 을 달력에 찍었는가
- ☐ 겹치는 날이 **없는가**
- ☐ 준비할 대학을 **둘셋으로** 좁혔는가
- ☐ 대학이 공개한 **예시 답안** 을 보았는가

네 번째가 가장 정확한 잣대입니다. 못 푸는 것은 배우면 되지만, 못 견디는 것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논술반에 등록하기 전에 기출을 먼저 써 보십시오. 논술 수업은 길고 비싸서 학원이 권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학생에게는 그 시간이 통째로 손해**입니다. 기출은 대학 홈페이지에 **해설과 예시 답안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 번 써 보시는 데 드는 돈은 없고, 그 한 번이 몇 달을 정합니다.**

62 · 자주 묻는 것

수리논술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내신이 안 좋아도 정말 되나요?

내신 반영 비중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요강에 「논술100」이라 적힌 자리가 476줄입니다 — 내신을 아예 안 보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2026학년도 논술 전형의 학생부 70%컷 중앙값은 **4.17등급**이었습니다. 교과 2.76등급, 학종 3.22등급과 견주면 내신이 낮은 학생이 실제로 합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내신이 안 좋으니 논술」은 위험한 순서입니다. 논술은 내신 대신 **논술 실력과 수능최저**를 봅니다. 둘 다 없으면 내신보다 더 좁은 문입니다. 「내신이 약하다」가 아니라 「논술이 맞다」가 이유여야 합니다.

Q.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고3 여름이면 대개 늦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I·II, 미적분 같은 교과 내용 위에서 출제됩니다. 그 내용이 안 되어 있으면 논술 준비가 아니라 수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건 논술 준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은 시기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해당 범위의 교과 내용이 되어 있으면 여름부터 두세 달로 충분하고, 안 되어 있으면 그것부터 해야 하니 시간이 훨씬 더 듭니다.

그리고 수능 공부와 겹치는 부분이 큼니다. 논술 준비가 수능에 도움이 되고 반대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따로 쓰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은 부담을 덜어 드릴 만합니다.

한 줄로 남기면

수리논술은 내신이 약한 학생의 도피처가 아니라 오래 붙드는 학생의 자리입니다. 맞는지는 기출 한 번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과 공개 전형결과를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합격선과 경쟁률은 신지 않습니다. 문항 수·시간·출제 범위는 대학마다 다르니 요강과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를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63 · 숫자부터

수능 공부로 준비하는 논술

「논술은 우리 애랑 상관없어요.」

일반 논술을 떠올리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긴 지문, 원고지, 몇 달의 준비. 그런데 **약술형**이라 불리는 갈래는 생김새가 다릅니다. **학교 시험의 서술형 문제에 가깝습니다.**

한 대학의 2027학년도 논술전형 구조를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무엇	어떻게
문항 수	13문항 (인문 국어 8 + 수학 5 · 자연 국어 5 + 수학 8)
시험 시간	80분
출제 범위	국어 — 1학년 국어·문학·독서·화법과작문·언어와매체 수학 — 수학 I·수학 II
배점	1문항 10점 · 기본점수 870점 + 논술 130점
연계	수능특강·수능완성 연계교재를 활용해 출제
수능최저	국어·수학·영어·사/과탐(1과목)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 (우리 요강 자료와 일치함을 확인)

여기서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 — 수학 범위가 수학 I·II 뿐입니다. 미적분도 기하도 없습니다. **고2까지의 내용**으로 치릅니다.

둘 — EBS 연계입니다. 수능특강·수능완성을 활용해 출제합니다. **수능 준비가 그대로 논술 준비가 됩니다.**

셋 — 최저가 낮습니다. 1개 영역 3등급이면 됩니다. 앞서 보셨듯 수시 최저의 대부분이 2~3개 영역의 등급 합을 요구합니다. 한 과목만 3등급이면 되는 조건은 **매우 험거운 편**입니다.

출처: 해당 대학 2027학년도 논술전형 안내 보도(2026년) 및 저희가 집계한 2027 수시 요강 자료. 수능최저 조건은 두 자료가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해마다 바뀌니 지원 전 요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64 · 무엇이 다른가

일반 논술과 약술형

같은 「논술」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준비하는 것이 다릅니다.

	일반 논술	약술형
답안	긴 글 — 논증	단답·단문
문항 수	서너 문항	10문항 이상
한 문제에	20~30분	5분 안팎
범위	넓고 깊습니다	교과서·EBS
난이도	대학 수준	학교 정기시험 수준
준비	따로 몇 달	수능 공부와 겹칩니다

맨 아랫줄이 이 갈래의 핵심입니다. 따로 쓰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수능특강을 푸는 것이 곧 준비이고, 다른 것은 「서술형으로 답을 적는 연습」 뿐입니다.

배점 구조를 보십시오

앞의 표에 1문항 10점 · 기본점수 870점 + 논술 130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000점 만점처럼 보이지만 870점은 모두에게 주는 기본점수입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130점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신도 수능도 아닌, 그날 쓴 답안 130점이 당락을 정합니다. 내신이 세어지지 않는 자리라는 말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해당 대학 2027학년도 논술전형 안내. 배점 구조는 대학마다 다르니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65 · 왜 저평가인가

아는 사람이 적어서입니다

이 갈래가 덜 알려진 데는 까닭이 몇 가지 있습니다.

Q. 하나 — 「논술」이라는 이름이 겁을 줍니다

이름만 보고 「우리 애는 글을 못 써서」로 접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신 대로 **단답과 단문**입니다. **학교 서술형** 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히려 글을 길게 쓰는 능력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확하게 짧게 적는 것**입니다.

Q. 둘 — 상위권 대학이 아니어서 화제가 덜 됩니다

입시 이야기는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약술형을 두는 곳은 대개 그 바깥이라 **기사도 설명회도 적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학생 수로 보면 훨씬 많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정보가 적은 자리일수록 알아본 사람이 유리합니다.

Q. 셋 — 준비 기간이 짧아 상품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까닭도 있습니다. **몇 달짜리 강의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수능 공부와 겹치고, 따로 배울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원이 앞장서서 알릴 이유가 적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팔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경쟁률은 낮지 않습니다. **준비 비용이 낮다는 것이지 불기 쉽다는 뜻이 아닙니다**. 들이는 시간 대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이 이 갈래의 값입니다.

이 장의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공시 자료로 뒷받침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66 ·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는 차례와 점검표

약술형은 확인이 준비의 대부분입니다.

차례	무엇을	어디서
1	어느 대학이 이 방식을 쓰는지 찾습니다	각 대학 요강
2	출제 범위를 확인합니다	수학이 어디까지인가
3	수능최저를 확인합니다	몇 개 영역 몇 등급인가
4	기출을 한 번 풀어 봅니다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
5	고사일을 달력에 찍습니다	요강 전형 일정

4번을 꼭 하십시오. 기출을 보시면 「이 정도면 해 볼 만하다」거나 「생각보다 어렵다」가 그 자리에서 판가름납니다. 설명을 열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푸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서술형으로 적는 연습은 따로 하셔야 합니다. 답은 아는데 어떻게 적어야 점수가 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학이 공개한 예시 답안을 보고 형식을 익히십시오. 이걸 며칠이면 됩니다.

약술형 논술을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그 대학이 약술형인지 일반 논술인지 확인했는가
- ☐ 문항 수 와 시험 시간 을 보았는가
- ☐ 수학 출제 범위 가 어디까지인가
- ☐ EBS 연계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 ☐ 수능최저 가 몇 개 영역 몇 등급인가
- ☐ 기본점수 가 얼마이고 실제로 갈리는 점수가 얼마인가
- ☐ 기출 을 한 번 풀어 보았는가
- ☐ 고사일 이 다른 지원과 겹치지 않는가

여섯 번째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기본점수가 크면 실제로 갈리는 폭은 좁습니다. 한 문제의 무게가 그만큼 큼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술형 논술은 따로 학원을 다니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위가 수능과 겹치고 EBS 연계라, 이미 하고 계신 공부 가 그대로 준비입니다. 따로 하실 것은 기출을 풀고 예시 답안을 보며 적는 형식을 익히는 것뿐이고, 그건 며칠이면 됩니다. 그 며칠로 원서 한 장이 더 생깁니다.

67 · 자주 묻는 것

약술형 논술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수능을 잘 보면 정시로 가면 되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둘은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약술형 논술은 수능 공부와 범위가 겹칩니다. 그러니 준비한다고 해서 정시 준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같은 공부로 두 개의 문을 여는 셈입니다.

그리고 수능은 하루에 정해집니다. 그날 한 과목이 흔들리면 정시 선이 통째로 내려갑니다. 수시 한 장이 그때 남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다만 수시에 최종 등록하면 정시에 못 갑니다. 그러니 「붙으면 갈 자리」에만 쓰십시오. 정시로 갈 수 있는 선보다 낮은 곳에 쓰시면 안 됩니다.

Q. 글씨가 나쁘면 불리한가요?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글씨를 점수로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볼 수 없으면 채점이 안 됩니다. 단답·단문이라 숫자나 기호 하나가 답인 경우가 많은데, 6과 0이 구분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잃습니다.

실전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답을 적는 자리입니다. 답란이 정해져 있는데 엉뚱한 칸에 적거나, 여러 답을 한 칸에 몰아 적으면 맞아도 점수가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출을 실제 답안지 형식으로 한 번 써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내용보다 형식에서 잃는 점수가 아깝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약술형 논술은 새로 배우는 시험이 아니라 이미 하는 공부를 다르게 쓰는 자리입니다. 기출 한 번이면 내 자리인지 아닌지 아십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한 대학의 공개된 논술전형 구조를 예로 든 것입니다. 대학마다 문항 수·시간·범위·배점·최저가 모두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지원 전에는 목표 대학의 최신 요강과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68 · 숫자부터

사흘에 절반이 넘게 몰립니다

「논술 세 곳 쓰려는데, 두 곳이 같은 날입니다.」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서를 낸 뒤에는 못 바꿉니다. 논술은 직접 가서 치러야 하니, 같은 날이면 한 곳을 버려야 합니다.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달력** 문제입니다.

2027학년도 논술 **1,033**줄(32개 대학)의 고사일을 세어 보았습니다. 시험일은 **16일**뿐인데, 자리는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고사일	자리	비중	그날 시험 치는 대학
11월 22일	230	23%	8개
11월 15일	185	18%	7개
11월 16일	145	14%	7개
11월 23일	135	13%	7개
9월 27일	57	6%	2개

가장 몰린 사흘에 전체의 55%가 들어 있습니다. 닳새로 넓히면 74%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논술 자리는 1,033개인데, 한 학생이 실제로 고를 수 있는 것은 날짜만큼입니다. 같은 날에 여덟 개 대학이 시험을 치면 그중 하나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여러 장 쓰실 생각이라면 **학교를 고르기 전에 달력부터 펴셔야** 합니다. 순서를 반대로 하면 원서를 버리게 됩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논술 고사일을 저희가 집계. 32개 대학 1,033줄 가운데 고사일이 밝혀진 1,021줄 기준입니다. 일정은 정정될 수 있으니 각 대학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69 · 수능 전과 후

두 덩어리로 갈립니다

고사일은 수능을 기준으로 성격이 완전히 갈립니다.

언제	자리	비중	무엇이 다른가
수능 전	164	16%	수능 준비를 끝 고 가야 합니다
수능 후	869	84%	수능 가채점 을 보고 갑니다

수능 전 논술의 값과 대가

값 — 수능 전에 치르면 **경쟁자 가운데 상당수가 빠집니다**. 수능이 코앞이라 안 가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시율이 높습니다**.

대가 — 수능 직전 한 주를 **논술에 쓰게** 됩니다. 그 시기의 하루는 평소의 하루와 무게가 다릅니다. 그리고 **최저를 걸어 둔 자리라면, 논술을 잘 봐도 수능이 무너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수능이 **확실한 학생에게는 수능 전 논술이 유리하고**, 수능이 **아슬아슬한 학생에게는 위험합니다**. 「**경쟁률이 낮아 보이니까**」 만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수능 후 논술은 몰립니다

84%가 수능 뒤 **2주 남짓**에 몰려 있습니다. 앞의 표에서 보신 대로 그 안에서도 **며칠에 다시 겹칩니다**. **이 짧은 기간에 몇 곳을 갈 수 있는지가 실제 지원 가능 수입**입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결시율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이며 대학은 결시율을 대개 공개하지 않습니다.

70 · 무엇이 걸리나

날짜 말고도 겹치는 것들

달력을 볼 때 날짜만 보시면 놓치는 것이 셋입니다.

Q. 하나 — 같은 날 오전·오후

같은 날이어도 **계열에 따라 시간이 다른** 대학이 있습니다. 인문은 오전, 자연은 오후인 식입니다.

그러면 **같은 날 두 곳을 갈 수 있을까요**. 산술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고사장 사이를 이동할 시간**이 있어야 하고, 앞 시험이 늦어지면 뒤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논술 두 개는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Q. 둘 — 면접과 겹칩니다

논술끼리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학종 면접도 같은 시기에 있습니다**. 여섯 장 안에 논술 셋과 면접 둘이 있으면 **다섯 개의 날짜를 한 달 안에 맞춰야** 합니다.

여섯 장 전체의 일정을 한 장의 달력에 찍어 보십시오. 논술만 보다가 면접과 부딪히는 일이 잦습니다.

Q. 셋 — 이동 거리

고사장이 멀면 **전날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틀**을 쓰는 것입니다. 연달아 이틀에 시험이 있는데 고사장이 서로 멀면 둘 다 제대로 못 봅니다.

그리고 고사장은 **본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분산 고사장을 운영하는 대학이 있으니 **어디서 치르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논술 지원은 「**몇 장 쓸까**」가 아니라 「**며칠을 쓸 수 있나**」의 문제입니다.

출처: 각 대학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전형 일정·고사장 안내. 대학마다 다르니 지원 전에 확인하십시오.

71 · 그래서 무엇을

달력을 짜는 차례와 점검표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버리는 원서가 없어집니다.

차례	무엇을	언제
1	쓰고 싶은 곳의 고사일 을 다 적습니다	원서 쓰기 전
2	달력에 찍어 봅니다 — 면접도 함께	원서 쓰기 전
3	겹치는 날은 하나를 고릅니다	원서 쓰기 전
4	빈 날짜에 다른 대학 을 찾습니다	원서 쓰기 전
5	고사장 위치 와 이동 시간을 봅니다	원서 쓰기 전

다섯 가지가 모두 「원서 쓰기 전」입니다. 원서를 낸 뒤에는 날짜를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4번이 실전에서 가장 값집니다. 겹치는 날을 피해 빈 날짜의 대학을 찾는 것이, 경쟁률 낮은 곳을 찾는 것보다 훨씬 확실한 이득입니다. 날짜가 비어 있으면 그 원서는 살아 있는 원서이고, 겹치면 낸 순간 반쯤 죽은 원서입니다.

논술 원서를 넣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쓰려는 곳의 **고사일** 을 모두 적어 보았는가
- ☐ 달력에 **찍어** 보았는가
- ☐ 같은 날에 **두 곳** 이 들어 있지 않은가
- ☐ **학종 면접** 날짜도 함께 찍었는가
- ☐ 계열에 따라 **오전·오후** 가 다른지 보았는가
- ☐ **고사장** 이 어디인지 확인했는가
- ☐ 연달아 있는 날의 **이동 거리** 를 보았는가
- ☐ 수능 **전** 에 치르는 것이 몇 개인가

마지막 항목을 세어 보십시오. 수능 전 논술이 둘 이상이면 수능 준비가 끝납니다. 한 개까지가 대개 감당하실 수 있는 선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달력 짜기는 상담을 받지 않으셔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각 대학 요강에서 고사일 한 줄씩 옮겨 적고 달력에 찍으면 끝입니다. 한 시간이면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 시간이 원서 한두 장을 살립니다. 상담에서 이 일에 시간을 쓰시는 것은 아까운 일입니다 — 그 시간에는 어느 자리가 나에게 맞는지 물을셔야 합니다.

72 · 자주 묻는 것

논술 일정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논술은 몇 장까지 쓰는 것이 좋은가요?

날짜가 정합니다. 장수를 먼저 정하고 학교를 찾으시면 겹칩니다.

앞의 숫자를 다시 보십시오. 고사일은 **16일**이고, 그 가운데 **사흘**에 **55%**가 몰려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날짜로 셋을 잡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73%**가 수능최저를 겁니다. 최저를 못 넘기면 논술을 잘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날짜가 되고 최저도 되는 자리만 세어 보시면 대개 두세 장으로 정리됩니다.

여섯 장을 논술로 채우는 것은 대개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날짜가 겹쳐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이 그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Q. 고사일이 겹치면 하나는 그냥 버리는 건가요?

네. 그리고 원서비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겹치는 줄 알면서 두 곳을 쓰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가서 보고 정하지」가 안 됩니다 — 같은 시간에 두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러 그렇게 쓰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수능 가채점 결과를 보고 정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때입니다. 수능 뒤 고사라면, 가채점으로 최저 충족 여부를 보고 최저가 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건 원서 두 장을 걸고 하나를 버리는 계획입니다. 미리 그렇게 정하고 쓰는 것과 모르고 겹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모르고 겹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논술 지원은 **학교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날짜를 고르는 일**입니다. **달력을 먼저 펴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고사일을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의 일정과 경쟁률은 신지 않습니다. 일정은 대학이 정할 수 있으니 지원 전에 각 대학 입학처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73 · 먼저 사실부터**읽는 사람이 있는 유일한 서류****「세특에 뭘 적어야 하나요?」**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세특은 학생이 적는 것이 아닙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이 적습니다.**
그러니 물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 「**무엇을 적어야 하나**」가 아니라 「**선생님이 무엇을 적을 수 있게 할 것인가**」입니다.

세특이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전형	모집 인원	세특을 보는가
학생부종합	30,468명	핵심 자료입니다 — 사람이 읽습니다
학생부교과	26,958명	대개 안 봅니다 — 등급만 셉니다
논술	9,314명	거의 안 봅니다

세특이 값을 갖는 곳은 학종입니다. 그리고 학종은 수시에서 가장 큰 갈래입니다 — **30,468명**입니다.

그러니 **학종을 볼 생각이 없으시면 세특에 힘을 쓰실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거꾸로 학종을 주력으로 보신다면 **세특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먼저 어느 쪽인지부터 정하십시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전형별 서류 반영 여부는 대학마다 다르니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의 나머지는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며 통계가 아닙니다.

74 · 무엇이 다른가

한 일과 읽히는 일

같은 활동을 해도 기록되는 방식에 따라 읽히는 정도가 다릅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반복해 보는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덜 읽히는 기록	잘 읽히는 기록
주어	수업이 무엇을 다뤘다	학생이 무엇을 했다
내용	발표를 함	무엇을 왜 그렇게 다뤘는지
결과	잘함 · 우수함	어디까지 갔고 무엇이 남았는지
이어짐	한 번으로 끝	다음 학기에 이어짐

가장 흔한 어긋남 — 수업 내용만 적힌 기록

「○○ 단원에서 △△를 배우고 관련 발표를 함. 성실함.」 이런 문장은 어느 학생에게나 쓸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건 선생님 탓이 아닙니다. 적을 것이 없으면 그렇게 적힙니다. 한 반에 여러 명, 여러 반을 가르치시는 분이 기억에 남는 것이 없으면 일반적인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할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적을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활동을 크게 벌이는 일이 아니라 수업에서 남는 것을 만드는 일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질문입니다. 수업에서 궁금한 것을 묻고, 그 답을 따라 조금 더 알아본 뒤 다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건 선생님 입장에서 적을 것이 생기는 유일한 순간에 가깝습니다.

이 장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대학이 세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공개 기준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렇게 적으면 합격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75 · 깊이의 기준

무엇이 깊은 것인가

「깊이 있게」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깊은 것인지가 모호합니다. 저희가 쓰는 잣대는 셋입니다.

Q. 하나 — 물음이 자기 것인가

주제가 어디서 왔는지가 드러나면 깊어 보입니다. 「선생님이 주신 주제」와 「수업 중에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같은 결과물이어도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기록에 「왜 이걸 하게 됐는지」가 한 줄이라도 있으면 크게 달라집니다. 이건 대단한 계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교과서 설명이 이해가 안 돼서」도 훌륭한 출발입니다.

Q. 둘 — 한 단계 더 갔는가

조사해서 정리하는 것까지는 대부분 합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간 흔적이 있으면 눈에 띕니다.

직접 재 보거나, 다른 자료와 견주거나, 반대 주장을 찾아보거나, 안 맞는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는 것입니다.

특히 「해 봤더니 예상과 달랐다」는 기록이 잘 읽힙니다. 실제로 해 본 사람만 쓸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Q. 셋 — 이어졌는가

한 학기에 하나씩 흩어진 활동보다, 2학년의 물음이 3학년에서 이어지는 것이 훨씬 강하게 읽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목이 달라도 된다는 점입니다. 국어에서 시작한 관심이 사회에서 이어지고 과학에서 확인되면, 세 과목의 세특이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학종이 읽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건 고3에 만들 수 없습니다 — 시간이 필요한 종류의 것입니다.

거꾸로 깊이로 오해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낱말, 대학 수준의 주제, 거창한 제목. 이런 것은 혼자 한 것이 아닌 티가 나기 쉽습니다.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제로 한 것이 언제나 낫습니다.

이 세 잣대는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대학마다 보는 눈이 다르며, 공식 기준이 아닙니다.

76 · 그래서 무엇을

학기 중에 하실 일과 점검표

세특은 학기가 끝나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하셔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왜
학기 초	관심 있는 과목 두셋을 정합니다	전 과목은 못 합니다
수업 중	궁금한 것을 적어 둡니다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수업 뒤	그중 하나를 찾아보고 다시 묻습니다	여기서 기록이 생깁니다
수행평가	그 물음을 주제로 삼습니다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학기 말	한 일을 정리해 둡니다	다음 학기에 이어 갑니다

「과목 두셋」으로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도하면 다 알아집니다. 진로와 가까운 과목 둘셋에 힘을 모으는 편이 훨씬 잘 읽힙니다.

이번 학기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힘을 모을 과목 두셋 을 정했는가
- ☐ 수업에서 궁금한 것을 적어 두고 있는가
- ☐ 그중 하나라도 찾아본 것 이 있는가
- ☐ 찾아본 것을 선생님께 다시 가져갔는가
- ☐ 수행평가 주제를 내 물음에서 잡았는가
- ☐ 「해 봤더니 달랐다」가 하나라도 있는가
- ☐ 지난 학기 활동과 이어지는 것 이 있는가
- ☐ 남이 대신 해 준 부분이 없는가

네 번째가 실제로 기록을 만듭니다. 혼자 조사하고 끝내면 선생님은 그 사실을 모르십니다. 가져가야 적힙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특을 만들어 준다는 곳을 조심하십시오. 세특은 선생님이 관찰한 것을 적는 기록입니다. 밖에서 만든 결과물을 가져가도 선생님이 보지 않은 과정은 적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관련 내용은 기재가 제한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리라 오히려 공평한 자리입니다.

77 · 자주 묻는 것

세특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진로가 안 정해졌으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정해서 맞추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학종이 보는 것은 「진로가 일관되는가」보다 「스스로 파고드는 사람인가」에 가깝습니다. 관심이 바뀌어도 **바뀐 까닭이 보이면** 그것도 읽힙니다.

실제로 **고1에 정한 진로가 끝까지 가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대학도 그것을 압니다. 「무엇을 할지」보다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면 됩니다.

그러니 진로가 없으시면 **지금 재미있는 과목에서** 시작하십시오. 거기서 파고든 흔적이 남으면, **그 자체가 읽히는 자료**가 됩니다.

Q. 선생님이 잘 안 써 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왜 그런지**를 보셔야 합니다. 대개는 **적을 거리가 없어서**입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학생이 한 것을 선생님이 보셨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혼자 조사하고 제출만 했다면, 선생님은 **결과물만 보신 것**입니다. **과정을 보셔야 과정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수업 중에 묻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도 좋습니다. 「**이거 찾아봤는데 이런 게 궁금해졌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이건 학생이 할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과목에서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두셋이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학생도 선생님도 지칩니다.**

한 줄로 남기면

세특은 **쓰는 서류가 아니라 남는 기록**입니다. 선생님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자료에서 전형별 인원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이며, 세특에 관한 나머지 내용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대학의 평가 기준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단정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78 · 숫자부터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좁아진 것입니다

「3등급이면 수시는 안 되는 거죠?」
상담실에서 이 말을 하실 때 대개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오십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어 보면 다릅니다.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좁아진 것이고, 좁아진 정도가 갈래마다 다릅니다.

작년 70%컷을 공개한 자리 가운데 내신 3.0등급이 그 컷 안에 드는 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세었습니다.

내신	교과에서	학종에서	견주면
2.0	77%	89%	
2.5	60%	76%	
3.0	38%	58%	여기가 이 글의 자리입니다
3.5	19%	39%	
4.0	10%	21%	

3.0등급에서 교과 38%, 학종 58%가 남습니다. 절반 이상이 사라졌지만, 절반 가까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학종이 교과보다 20%p 더 열려 있습니다. 3등급에서 무게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가 이 한 줄에 있습니다.

여기에 논술이 따로 있습니다. 논술은 내신을 거의 안 보고, 요강에 「논술100」이라 적힌 자리가 476줄입니다. 내신이 아예 세어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대학 제출) 2026학년도에서 70%컷을 공개한 교과 2,799줄 · 학종 3,967줄을 저희가 집계. 이 표는 「자리가 몇 개인가」이지 「불을 가능성」이 아닙니다.

79 · 무엇을 세는 표인가

오해하기 쉬운 자리

앞의 표를 잘못 읽으시면 위험합니다. 세 가지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하나 — 「자리 수」 이지 「가능성」 이 아닙니다

3.0등급에서 학종 자리의 58%가 남는다는 것은 그 자리들에 원서를 낼 만하다는 뜻이지 58% 확률로 붙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리마다 경쟁이 따로 있습니다.

둘 — 컷은 하한이 아닙니다

앞서 보신 대로 70%컷보다 낮은 성적으로 붙은 합격자가 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표는 실제보다 좁게 잡은 것입니다. 컷 위쪽만 세었으니 보수적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 — 3등급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3.0등급도 생김새가 다릅니다.

어떤 3등급인가	여기서 유리한 자리
고르게 3등급	학종 · 논술 — 교과는 반영 과목을 골라도 안 달라집니다
주요 과목만 좋은 3등급	교과 — 반영 과목을 적게 보는 곳을 고르면 등급이 올라갑니다
1·2학년이 낮고 3학년이 오른	학종 — 흐름이 읽힙니다. 학년별 가중을 두는 교과도 봅니다
수능이 강한 3등급	논술 · 최저 있는 교과 — 최저로 경쟁자가 걸러집니다

「3등급」이라는 한 낱말로 자기 자리를 정하지 마십시오. 네 가지가 전혀 다른 전략을 씁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및 어디가 전형결과, 갈래 나눔은 저희 판단입니다.

80 · 가장 값이 큰 한 가지

반영 과목을 다시 세는 일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확실하게 이득이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를 더 하는 것도, 활동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반영 과목만으로 내 등급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교과 전형은 반영 과목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3등급 학생에게
전 과목을 반영	성적표의 등급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국·수·영· 탐만 반영	다른 과목이 통째로 빠집니다
계열 관련 과목만 반영	내 강한 쪽만 세어질 수 있습니다
상위 몇 과목만 반영	나쁜 과목이 안 들어갑니다
학년별 가중을 둬	3학년이 올랐다면 유리해집니다

같은 성적표로 계산한 등급이 대학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전 과목 3.2등급인 학생이 어떤 대학의 반영 방식으로는 2.8이 되기도 합니다. 공부를 더 하지 않고 등급이 올라가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이 계산은 성적표와 요강만 있으면 집에서 하십니다. 학과 하나에 십 분쯤 걸립니다. 열 곳을 계산해 보시면 하루가 안 걸리고, 그 하루가 등급 하나만큼의 값을 합니다.

남은 학기가 있다면

아직 학기가 남았다면 반영 비중이 큰 과목부터 챙기십시오. 모든 과목을 고르게 올리는 것보다, 세어지는 과목을 올리는 편이 효율이 몇 배입니다. 어느 과목이 세어지는지는 **요강에 적혀 있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학생부 반영 방법. 반영 과목·비중은 대학마다 다르니 요강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81 · 그래서 무엇을

남은 길을 세는 차례와 점검표

3등급에서 하실 일은 넷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차례	무엇을	무엇이 달라지나
1	반영 과목별로 다시 계산합니다	등급이 바뀌는 곳이 나옵니다
2	수능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셉니다	맞추면 문이 크게 넓어집니다
3	생활기록부에 읽힐 것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학종이 주력이 됩니다
4	논술이 맞는지 시험해 봅니다	맞으면 내신이 안 세어집니다

2번이 3등급에서 가장 크게 판을 바꿉니다. 교과와 69%, 논술의 73%가 최저를 겁니다. 최저를 넘기는 3등급은 못 넘기는 2등급보다 갈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최저에서 걸러지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4번은 「해 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논술이 맞는지 기출 문제를 한 번 써 봐야 합니다. 성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한 번 써 보고 정하십시오 — 맞으면 내신이 세어지지 않는 문이 열리고, 안 맞으면 그 시간을 최저에 쓰시면 됩니다.

지금 하실 여덟 가지

- ☐ 목표 대학 열 곳 의 반영 과목을 적어 보았는가
- ☐ 반영 과목별로 내 등급을 다시 계산 해 보았는가
- ☐ 등급이 올라가는 곳 이 있었는가
- ☐ 모의고사로 내 최저 합 을 세어 보았는가
- ☐ 최저를 한 등급 올리면 자리가 얼마나 느는지 보았는가
- ☐ 생활기록부를 통째로 읽어 보았는가
- ☐ 논술 기출을 한 번 써 보았는가
- ☐ 여섯 장을 세 갈래에 나눠 놓았는가

여덟 가지 가운데 돈이 드는 일은 없습니다. 요강·성적표·기출문제는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학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작습니다. 3학년 한 학기로 내신 등급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 이미 쌓인 학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힘을 수능최저와 반영 과목 다시 세기에 쓰시면 훨씬 확실하게 자리가 늘어납니다. 앞의 표에서 보셨듯, 최저 한 등급이 문을 20%p씩 넓힙니다.

82 · 자주 묻는 것

3등급 학생과 학부모님의 질문

Q. 재수를 생각하는 게 나을까요?

저희가 정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계산해 보실 것은 있습니다.

재수로 바뀌는 것은 수능입니다. 내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수는 정시로 가는 길을 넓히는 선택이지, 수시를 다시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물음은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수시로 갈 수 있는 곳보다 나은가.」

이 물음에 답하시려면 지금 수시로 갈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세어 보셔야 합니다. 앞의 넷을 다 해 보시고, 그래도 남는 자리가 마음에 안 드실 때 그때 하실 이야기입니다. 세어 보기 전에 정하지 마십시오.

Q. 3등급인데 상향으로 여섯 장을 다 쓰면 안 되나요?

쓰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거는지는 아셔야 합니다.

수시에 한 곳이라도 최종 등록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섯 장을 다 상향으로 쓰는 것은 「다 떨어지고 정시로 간다」를 계획으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계획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이 강한 학생에게는 합리적입니다. 다만 그것이 계획이라는 것을 가족이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12월에 여섯 장이 다 떨어졌을 때 「예상한 일」인 것과 「무너진 일」인 것은 남은 두 달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시로 갈 수 있는 선을 미리 세어 두십시오. 그 선이 상향으로 쓴 자리들보다 낮다면, 여섯 장 가운데 몇 장은 정시 선보다 나은 자리로 채우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3등급에서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셈**입니다. 남은 자리를 정확히 세어 보십시오. 생각보다 많고, 갈래마다 다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요강과 전형결과를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합격선은 실지 않습니다. 「열린 자리」는 작년 70%컷을 공개한 곳만 센 값이며 **합격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83 · 숫자부터**바닥을 먼저 정합니다**

「안정 돌, 적정 돌, 소신 돌로 쓰면 되나요?」

가장 널리 도는 공식이고, 가장 자주 틀리는 공식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정·소신은 **내 성적을 기준으로 정하는** 말인데, 정작 **기준이 되어야 할 바닥을 안 정하고**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 바닥은 **정시로 갈 수 있는 선**입니다.

왜 정시 선이 바닥인지부터 보시겠습니다. **규칙 하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
수시에 최종 등록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충원으로 붙어 등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에 다 떨어지면	정시로 갑니다

그러니 정시로 갈 수 있는 곳보다 낮은 자리에 원서를 쓰는 것은 그 자리에 붙으면 손해가 되는 원서를 쓰는 일입니다. 붙어서 곤란해지는 원서는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충원까지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2026학년도 충원을 중앙값이 75%였고, 교과는 122%였습니다. 「**어차피 안 붙겠지**」로 쓴 자리가 실제로 붙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정시 선을 먼저 세우고, 그 위로 여섯 장을 쌓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및 어디가 전형결과 2026학년도 집계. 수시 등록자의 정시 지원 제한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84 · 무엇이 다른가

세 층의 뜻

안정·적정·소신을 **정시 선을 기준으로 다시 정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층	무엇인가	몇 장
안정	정시 선보다 확실히 위이고, 붙을 가능성이 큰 자리	1~2장
적정	작년 컷과 내 성적 이 비슷한 자리	2~3장
소신	컷보다 위지만 가고 싶은 자리	1~2장

안정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붙는 곳」이 아니라 「**붙어도 좋은 곳 가운데 붙을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붙었을 때 안 가고 싶은 자리는 안정이 아니라 버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안정 두 장」이 늘 옳지는 않습니다

정시 선이 높은 학생은 안정 자리를 잡기 어렵습니다. 정시로 갈 수 있는 곳보다 확실히 위이면서 붙을 가능성도 큰 자리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생은 **안정을 줄이고 소신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수시에 다 떨어져도 정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시 선이 낮은 학생은 반대입니다. 수시가 사실상 주된 길이므로 **안정을 두텁게**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여섯 장을 다 쓰는 것이 대개 맞습니다.

즉 배분은 성적의 높낮이가 아니라 「수시와 정시 중 어디가 주력인가」로 갈립니다. 같은 등급이어도 수능이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 정반대가 됩니다.

출처: 배분에 대한 설명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공시 자료로 뒷받침되는 공식이 아닙니다.

85 · 갈래도 함께 나눕니다

총만 나누면 반쪽입니다

여섯 장을 총으로만 나누면 위험이 남습니다. 갈래로도 나누셔야 합니다.

이렇게 물리면	무엇이 위험한가
여섯 장이 다 교과	내신 한 가지로만 재니, 등급이 안 되면 여섯 장이 함께 안 됩니다
여섯 장이 다 최저 있음	수능 하루에 여섯 장이 함께 걸립니다
여섯 장이 다 논술	고사일이 겹쳐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이 적습니다
여섯 장이 다 학종	서류가 약하면 다 같은 이유로 떨어집니다

둘째 줄을 특히 보십시오. 수시 전체의 46%가 수능최저를 겁니다. 여섯 장을 최저 있는 자리로만 채우면 수능 당일 한 과목이 흔들릴 때 여섯 장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최저 없는 자리를 한두 장 섞어 두는 것이 안전판이 됩니다. 학종은 15%만 최저를 겁니다 — 최저 없는 자리를 찾기 가장 쉬운 갈래입니다.

그래서 두 축으로 봅니다

여섯 장을 총(안정·적정·소신)과 갈래(교과·학종·논술)의 두 축으로 펼쳐 놓아 보십시오. 한 칸에 몰려 있으면 그것이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최저 있음·없음도 표시해 두십시오. 최저가 없는 장이 하나도 없다면 한 장은 바꾸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배분 방법은 저희 판단입니다.

86 · 그래서 무엇을

짜는 차례와 점검표

순서를 지키면 여섯 장이 저절로 자리를 잡습니다.

차례	무엇을	왜 이 순서인가
1	정시 선을 세웁니다	바닥이 정해져야 나머지가 정해집니다
2	그 선 아래 자리를 지웁니다	붙으면 손해가 되는 자리입니다
3	남은 자리를 층으로 나눕니다	안정·적정·소신
4	갈래로도 나눕니다	한 칸에 몰리지 않게
5	최저 없는 장을 한둘 섞습니다	수능 하루의 위험을 나눕니다
6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 봅니다	겹치면 한 장은 죽습니다

2번을 실제로 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혹시 모르니 하나쯤」으로 낮은 자리를 넣으시는데, 그 자리에 붙고 층원까지 돌면 정시가 닫힙니다. 안 갈 자리는 처음부터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여섯 장을 정하고 나서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정시로 갈 수 있는 선 을 세어 보았는가
- ☐ 그 선보다 낮은 자리 가 섞여 있지 않은가
- ☐ 여섯 장이 한 갈래에 몰려 있지 않은가
- ☐ 최저 없는 자리 가 하나라도 있는가
- ☐ 안정이라 부른 자리에 붙으면 갈 것인가
- ☐ 소신 자리가 둘을 넘지 않는가
- ☐ 일정 이 겹치지 않는가
- ☐ 여섯 장의 순위 를 가족이 정했는가

다섯째가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붙어도 안 갈 곳」은 안정이 아닙니다. 그건 버리는 장이거나, 더 나쁘게는 정시를 막는 장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 둘·적정 둘·소신 둘」이라는 공식을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이 공식은 수시가 주력인 학생에게 맞는 배분입니다. 수능이 강한 학생이 이대로 쓰면 안정 자리에 붙어서 정시를 못 가는 일이 생깁니다. 먼저 정시 선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몇 장을 어디에 쓸지가 저절로 나옵니다.

87 · 자주 묻는 것

여섯 장 배분에 대한 질문

Q. 정시 선은 어떻게 세우나요?

모의고사 성적으로 대략을 잡습니다.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 수능은 아직 안 봤고, 정시 지원자 분포도 모릅니다.

그래도 대략은 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모의고사 성적으로 「이 정도면 어느 선까지」를 두세 단계로 잡아 두십시오. **잘 나온 경우와 못 나온 경우를 나눠** 잡으시면 더 쓸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이 아래로는 안 쓴다」**는 선입니다. 그 선만 있어도 버리는 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능 뒤에는 이 선이 정확해집니다. 수능 후에 치르는 대학별고사가 있다면, **가채점으로 선을 다시 잡고 갈지 말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Q. 소신 지원을 여섯 장 다 하면 안 되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계획이어야 합니다.

여섯 장을 다 상향으로 쓰는 것은 「다 떨어지면 정시로 간다」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능이 강한 학생에게는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가족이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12월에 여섯 장이 다 떨어졌을 때 「**예상한 일**」인 것과 「**무너진 일**」인 것은 남은 두 달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둘째, **정시 준비를 끝까지 이어 가셔야** 합니다. 수시 결과를 기다리며 손을 놓으면 **계획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한 줄로 남기면
여섯 장은 위에서부터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정하고 쌓는 것입니다. 바닥은 정시 선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과 공개 전형결과를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와 합격선은 실지 않습니다. 배분 방법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며 학생마다 다릅니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88 · 숫자부터

실력과 무관하게 죽는 원서

「자격이 안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고, 가장 억울한 실패입니다. 성적이 되고 서류가 좋아도 자격에서 걸리면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그리고 대개 요강 첫 쪽에 적혀 있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 요강 6,482줄의 지원자격 문장을 훑어보면 걸릴 만한 조항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조항	줄	비중
졸업 시기 기준일을 못 박은 자리	1,888	29%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자리	1,071	17%
검정고시를 따로 언급한 자리	989	15%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자리	888	14%
국내 정규 고교로 한정된 자리	812	13%
학교폭력 조치를 명시한 자리	728	11%

여섯 장 가운데 한둘은 이 가운데 어딘가에 해당합니다. 확인은 한 번이면 되고, 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482줄의 지원자격 문장을 저희가 낱말로 집계. 표현이 다른 요강은 빠졌을 수 있으니 반드시 원문을 읽으십시오.

89 · 무엇이 걸리나

갈래별로 보시면 빠릅니다

자격 조항은 네 갈래로 나눠 보시면 빠짐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갈래	무엇을 묻나	어디서 걸리나
학력	어떤 학교를 언제 졸업(예정)하는가	졸업 시기 · 검정고시 · 해외 학교
추천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가	교내 절차 · 인원 제한
자격 요건	전형이 요구하는 조건에 해당하는가	지역인재 · 사회통합 · 특기자
결격	지원을 막는 사유가 없는가	학교폭력 조치 · 이중지원

가장 자주 걸리는 셋

하나 — 추천 인원 제한. 「고교별 추천 1명」인 자리는 학교 안에서 먼저 정해집니다. 대학 원서 마감일 아니라 학교의 교내 일정이 실제 마감입니다. 여름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는 이미 없습니다.

둘 — 지역인재.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가를 봅니다.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학교를 다닌 곳입니다. 그리고 전 학년을 그 지역에서 다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학 이력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셋 — 졸업 시기. 「2026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처럼 기준일이 적혀 있습니다. 조기졸업이나 유급 이력이 있으면 이 한 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지원자격 조항. 요건은 대학·전형마다 다르니 해당 요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90 · 농치기 쉬운 자리

자격이 되는데 모르고 안 쓰는 것

여기까지는 「안 되는데 쓰는 것」을 막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 「되는데 모르고 안 쓰는 것」입니다. 이쪽이 더 아깝습니다.

Q. 사회통합·기회균형 전형

대학은 정원의 일정 비율을 따로 뽑습니다. 해당되시면 **훨씬 넓은 문**이 열립니다.

해당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 특성화고 졸업자, 다자녀, 다문화 등입니다. **대학마다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립니다. 증명서를 여러 기관에서 떼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원서 기간에 알아보시면 늦습니다.**

Q. 지역인재 전형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만 지원하는 자리입니다. **경쟁 범위가 좁아지므로 대체로 유리합니다.**

특히 의약학 계열은 지역인재 선발이 법으로 일정 비율 이상 정해져 있어 자리가 적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당되는지 모르고 안 쓰는 학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어디서 다녔는지로 판정하니, 지금 사는 곳과 다를 수 있습니다.

Q. 농어촌 학생 전형

재학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함께 봅니다. 중학교까지 거슬러 보는 곳이 많아 **본인은 해당되는 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과 부모가 모두 그 기간에 해당 지역에 살았어야 하는 조건이 흔합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셋은 「해당되면 큰 이득, 안 되면 잃을 것 없음」입니다. **확인 자체가 손해가 아니니 반드시 알아보십시오.**

출처: 각 대학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전형별 지원자격. 인정 범위와 증빙 서류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91 ·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는 차례와 점검표

자격 확인은 여름에 한 번이면 끝납니다.

차례	무엇을	언제까지
1	쓸 자리의 지원자격 쪽만 읽습니다	여름
2	추천 이 필요한지 표시합니다	여름
3	필요하면 학교 에 신청합니다	교내 일정에 맞춰
4	사회통합·지역인재·농어촌 해당 여부 를 봅니다	여름
5	해당되면 증빙 서류 를 미리 땁니다	원서 전

1번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요강 전체를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 자격」이라고 적힌 쪽만 보시면 되고, 한 곳에 십 분입니다. 여섯 곳이면 한 시간입니다.

여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여섯 장 각각의 **지원자격** 을 읽었는가
- ☐ 졸업 시기 **기준일** 에 맞는가
- ☐ 학교장 **추천** 이 필요한 자리가 있는가
- ☐ 추천 **인원 제한** 이 있는가 — 교내 일정을 아는가
- ☐ **지역인재** 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 **사회통합·기회균형** 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 **농어촌** 요건을 초본으로 확인했는가
- ☐ 필요한 **증빙 서류** 를 땔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가

넷째와 여덟째가 시간이 걸리는 항목입니다. 나머지는 앉은자리에서 확인하십니다. 이 둘만 여름에 해 두시면 9월이 편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 확인에 컨설팅 비용을 쓰지 마십시오.** 요강의 「지원 자격」 쪽을 읽으면 나옵니다. 어려운 문장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통합·지역인재·농어촌**에 해당하실지 모르겠다면 **학교 선생님께 여쭙보십시오.** 학생의 학적과 생활기록부를 다 보고 계신 분이고,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92 · 자주 묻는 것

지원 자격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자격이 안 되는데 원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불합격 처리됩니다. 원서비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합격한 뒤에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합격 취소이고, 이미 다른 기회는 지나가 있습니다.

대학이 걸러 주겠지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요강에 대개 「지원자격 확인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애매하시면 대학 입학처에 직접 전화해 물으십시오. 입학처는 이런 문의를 늘 받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실례가 아닙니다.

Q. 학교폭력 조치가 있으면 아예 못 쓰나요?

「아예 못 쓴다」와 「감점된다」가 대학마다 다릅니다. 요강에 조치 호수별로 어떻게 반영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저희 집계로는 728줄이 이 조항을 지원자격이나 평가에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 지원 자체를 막는 곳, 점수를 깎는 곳, 정성평가에 반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확인만 반드시 요강 원문으로 하십시오. 전해 듣는 말이나 다른 대학의 사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조치라도 대학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안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쓸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지원 자격은 가장 먼저 확인하고 가장 늦게까지 미루는 것입니다. 여름에 한 시간이면 여섯 장이 안전해집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지원자격 문장을 집계한 것입니다. 집계는 낱말로 센 것이라 실제 조항은 이보다 많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대학의 자격 요건은 실지 않았으니 반드시 요강 원문과 입학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93 · 숫자부터

되돌릴 수 없는 자리들

「원서는 다 냈는데, 뭘 놓친 건 아닐까요.」

9월에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미 늦었습니다**. 원서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넌 뒤에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내기 전에** 보시는 것입니다.

2027학년도 수시 요강 **6,482줄**을 훑어 보면, **지원자격 문장에만도 걸릴 자리가 이만큼** 있습니다.

지원자격에 이런 조항이 있는 자리	줄
졸업 시기 기준일을 못 박음	1,888
학교장 추천이 필요	1,071
검정고시를 따로 언급	989
추천 인원제 제한	888
국내 정규 고교로 한정	812
학교폭력 조치를 명시	728

여기에 **수능최저**(46%가 겁니다)와 **고사일**(논술은 55%가 사흘에 몰립니다)이 더해집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그 원서는 죽습니다. 그리고 **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깝습니다. 다음 면부터 **열두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482줄을 저희가 집계. 지원자격 조항은 낱말로 센 것이라 **표현이 다른 요강은 빠졌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요강 원문을 읽으십시오.

94 · 먼저 넷

자격 — 여기서 걸리면 끝입니다

하나 — 지원 자격

- ☐ 졸업(예정) 시기 가 요강의 기준일에 맞는가
- ☐ 학교장 추천 이 필요한 자리인가 — 필요하면 학교에 신청했는가
- ☐ 추천 인원 제한 이 있는가 — 교내 경쟁이 먼저 있습니다
- ☐ 졸업생·검정고시라면 지원할 수 있는 자리인가

추천 인원 제한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고교별 1명」인 자리는 학교 안에서 먼저 정해집니다. 원서 마감에 맞춰 움직이시면 늦습니다 — 학교 일정이 따로 있습니다.

둘 — 수능최저

- ☐ 여섯 장 각각의 최저 문장을 옮겨 적어 보았는가
- ☐ 「합」인지 「각」인지, 몇 개 영역 인지 확인했는가
- ☐ 탐구 를 평균으로 세는지 택1로 세는지 보았는가
- ☐ 한국사 조항이 있는지 보았는가

최저를 못 맞췄을 때 남는 장이 몇인지 세어 보십시오. 여섯 장이 다 최저를 걸고 있으면 수능 하루에 여섯 장이 함께 걸립니다.

셋 — 일정

- ☐ 여섯 장의 대학별고사·면접 날짜 를 한 달력에 찍었는가
- ☐ 같은 날에 두 곳 이 들어 있지 않은가
- ☐ 고사장 이 어디인지, 갈 수 있는 거리인가
- ☐ 수능 전에 치르는 것 이 몇 개인가

넷 — 서류

- ☐ 제출 서류의 마감 시각 을 시간 단위로 확인했는가
- ☐ 자기소개서를 받는 자리라면 기재 금지 항목 을 확인했는가
- ☐ 추천서가 필요하면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렸는가
- ☐ 원서에 적은 연락처 가 지금 쓰는 번호인가

마지막 항목이 12월에 문제가 됩니다. 충원 통보는 전화로 오고, 못 받으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95 · 나머지 여덟

판단 — 여기서 갈립니다

앞의 넷이 「죽지 않게 하는 것」 이라면, 여기부터는 「살아 있는 원서로 만드는 것」 입니다.

#	무엇을	왜
5	갈래를 세어 보았는가	여섯 장이 한 갈래에 몰리면 함께 무너집니다
6	반영 과목으로 등급을 다시 계산했는가	대학마다 등급이 달라집니다
7	작년 모집 인원과 견주었는가	줄었으면 선이 올라갑니다
8	컷을 세 해 보았는가	한 해는 톱니다
9	정시로 갈 수 있는 선을 세어 두었는가	그보다 낮은 자리는 쓰면 안 됩니다
10	여섯 장의 순위를 가족이 정했는가	충원 전화는 몇 분 안에 답해야 합니다
11	붙으면 갈 자리인가	등록하면 정시가 닫힙니다
12	학생이 납득하고 있는가	다니는 사람은 학생입니다

9번을 특히 보십시오. 수시에 최종 등록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시로 갈 수 있는 선보다 낮은 자리에 원서를 쓰는 것은 스스로 문을 닫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시 선을 먼저 세어 두고, 그 위쪽으로 여섯 장을 배치하십시오.

12번은 마지막에 두었지만 무게로는 첫째입니다. 부모가 정한 자리에 붙으면 그 3년이 힘들어집니다. 학생이 「여기라면 다니겠다」고 말한 자리만 넣으십시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항목의 순서와 판단 기준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96 · 언제 무엇을

달력으로 보는 차례

열두 가지를 언제 하느냐가 실은 더 중요합니다. 늦으면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해야 할 것	늦으면
여름 (7~8월)	자격 확인 · 추천 신청 · 반영 과목 재계산	못 합니다
원서 직전	갈래 배분 · 일정 달력 · 정시 선 세기	못 고칩니다
원서 기간	서류 · 연락처 · 마감 시각	마감으로 끝
10~12월	대학별고사 · 면접 · 수능	—
12월~	발표 · 충원 전화 · 등록	몇 분 단위

맨 윗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장 추천은 교내 절차가 따로 있고 여름에 정해집니다. 원서 기간에 알아보시면 이미 다른 학생에게 갔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열두 가지 가운데 상담이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자격·최저·일정·서류는 요강을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컨설팅 비용이 값을 하는 자리는 갈래 배분과 순위 정하기 정도입니다.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을 돈으로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읽어 오신 분과의 상담이 훨씬 깊어집니다.

97 · 자주 묻는 것

원서를 앞두고 하시는 질문

Q. 원서를 낸 뒤에 바꿀 수 있나요?

대부분 못 바꿉니다. 원서비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접수 기간 안에 취소나 변경을 받는 대학이 일부 있지만 기간과 조건이 대학마다 다르고, 마감 뒤에는 어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고 나중에 생각하자」가 가장 비싼 판단입니다. 특히 고사일이 겹치는지는 낸 뒤에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마감 하루 전을 「점검하는 날」로 비워 두십시오. 여섯 장을 나란히 놓고 앞의 열두 가지를 훑는 데 두 시간이면 됩니다.

Q. 여섯 장을 다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섯은 한도이지 할당량이 아닙니다.

맞는 자리가 넷이면 넷만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억지로 채운 두 장은 대개 정시 선보다 낮은 자리가 되고, 그런 자리는 붙으면 오히려 곤란해집니다 — 수시에 등록하면 정시가 닫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쓸 자리가 없다」와 「알아보지 않았다」는 다릅니다. 앞서 보셨듯 반영 과목을 다시 계산하면 등급이 달라지는 곳이 있고, 약술형처럼 덜 알려진 자리도 있습니다. 세어 보고 넷이면 넷을 쓰시고, 안 세어 보고 넷이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원서에서 잃는 것은 대개 실력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이 여섯 장을 살립니다. 내기 전 두 시간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의 자격·일정·최저는 신지 않았습니다. 요강은 정정될 수 있으니 **지원 전에는 반드시 각 대학 입학처의 최종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98 · 숫자부터

기다리는 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예비 받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하나요.」

대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할 일이 있고, 안 하면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과 무관하게 잃습니다.

먼저 규모부터 보시겠습니다. 2026학년도 **10,490**줄의 충원을입니다.

무엇	얼마나
충원을 증양 값	75%
정원을 한 바퀴 넘게 다시 채운 자리	33%
추가합격이 한 명도 없던 자리	17%

추가합격은 예외가 아니라 보통입니다. 수시 합격자는 여러 곳에 동시에 붙고 **한 곳만 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가 빈자리가 되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 예비번호를 받으셨다면 **기다릴 일이지 접을 일이 아닙니다**. 다만 **17%**는 **한 명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유일하게 맞는 대응입니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대학 제출) 2026학년도 10,490줄을 저희가 집계. 충원 인원을 「명」 단위로 공개한 곳만 셉습니다.

99 · 어떻게 도는가

차수와 통보 방식

충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돕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시간이 짧아집니다.

차수	어떻게 알리나	답할 시간
앞 차수	홈페이지 발표	하루 이상
중간	홈페이지 + 문자	하루 안팎
마지막	전화	몇 분~몇 시간

마지막 차수가 가장 위험합니다. 전화로 통보하고 그 자리에서 답을 받습니다. 못 받으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해마다 전화를 못 받아 놓치는 학생이 나옵니다.

왜 마지막이 전화인가

충원에는 마감 시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각 전에 자리를 다 채워야 하는데, 발표를 걸고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빠르게 확인합니다. 대학이 급한 것이지 학생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기간에 지킬 것

모르는 번호를 받으십시오. 지역번호로 걸려 옵니다. 수업 중이면 쉬는 시간에 부재중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보호자 번호로도 걸립니다 — 원서에 적은 번호가 지금 쓰는 번호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리고 가족이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전화가 왔을 때 「상의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 장의 순위를 원서 쓸 때 정해 두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출처: 각 대학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충원 합격 안내. 차수·기간·통보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니 지원한 대학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100 · 기다리는 동안

동시에 해야 하는 것

이 시기의 실수는 대개 「기다리지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함께 하셔야 할 것이 셋입니다.

Q. 하나 — 정시 준비를 이어 갑니다

총원이 안 되면 정시로 갑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총원이 끝나야 압니다.

총원 기간과 정시 원서 기간은 이어져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을 놓으면 정시 준비 기간을 통째로 잃습니다.

「돌면 좋고 아니면 정시」로 마음을 정해 두시고, 정시 쪽을 기본으로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둘 — 정시 지원 계획을 세웁니다

수능 성적이 나온 뒤입니다. 정시로 갈 수 있는 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선과 지금 기다리는 자리를 견줘 보십시오. 기다리는 자리가 정시 선보다 낮다면, 총원 전화가 왔을 때 안 가는 것이 맞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을 미리 해 두셔야 합니다. 전화가 온 자리에서 하려 하면 몇 분 안에 3년을 정하게 됩니다.

Q. 셋 — 번호를 비율로 읽어 둡니다

예비번호 자체는 뜻이 없습니다. 모집 인원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100명 뽑는 곳의 예비 30번은 총원을 30%면 됩니다 — 넉넉합니다.

10명 뽑는 곳의 예비 30번은 총원을 300%가 필요합니다 — 10%만이 200%를 넘었으니 어렵습니다.

같은 번호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 계산을 해 두시면 기다릴지 접을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출처: 어디가 전형결과 2026학년도 집계 및 각 대학 요강. 판단 방법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101 · 그래서 무엇을

이 기간의 점검표

발표부터 총원 마감까지 2~3주입니다. 그동안 하실 것을 정리했습니다.

언제	무엇을
발표 직후	예비번호를 모집 인원으로 나눠 봅니다
발표 직후	대학의 총원 일정을 달력에 적습니다
발표 직후	원서에 적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바로	정시 계획을 세웁니다
기간 내내	모르는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가 오면	정해 둔 대로 바로 답합니다

총원 기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예비번호를 모집 인원으로 나눠 보았는가
- ☐ 그 대학의 총원 차수와 기간 을 아는가
- ☐ 마감 시각 을 시간 단위로 확인했는가
- ☐ 원서에 적은 전화번호 가 지금 쓰는 번호인가
- ☐ 보호자 번호 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가
- ☐ 이 자리가 정시 선보다 위 인가
- ☐ 전화가 오면 갈 것인지 가족이 정했는가
- ☐ 정시 준비 를 이어 가고 있는가

여섯째와 일곱째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전화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상담을 받으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하실 일은 번호를 나눠 보는 것과 전화를 받는 것뿐이고, 둘 다 집에서 하십니다. 돈을 쓰셔야 한다면 정시 준비에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간은 갑니다.

102 · 자주 묻는 것

추가합격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충원 전화를 받고 거절해도 되나요?

됩니다. 불이익도 없습니다. 거절하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거절이 맞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자리가 정시로 갈 수 있는 곳보다 낮을 때입니다. 등록하면 정시가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나온 뒤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원서를 쓸 때는 안정이라 여겼던 자리가, 수능을 잘 봤다면 이제는 안 갈 자리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이 계산을 끝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Q. 여러 곳에서 충원 전화가 오면요?

가장 가고 싶은 한 곳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수시는 여러 곳에 붙어도 등록은 한 곳입니다.

다만 시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먼저 온 곳의 답할 시한이 지나야 다음 곳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좋은 곳에서 올지 모르니 기다리자」가 위험한 까닭입니다 — 기다리다가 먼저 온 자리를 놓치고, 뒤엎것도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장의 순위를 원서 쓸 때 정해 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위가 있으면 전화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답할 수 있습니다. 순위가 없으면 그 몇 분이 가장 나쁜 결정을 만듭니다.

한 줄로 남기면

충원은 운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받는 자리입니다. 번호를 비울로 읽고, 전화를 받고, 정시를 이어 가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전형결과와 요강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총원 인원과 예비번호는 실지 않습니다. 총원 절차·차수·통보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니 지원한 대학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추가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103 · 먼저 사실부터

흔한 일입니다

「여섯 장이 다 떨어졌습니다.」

12월에 가장 무거운 전화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정시이고, 정시는 수시와 완전히 다른 셈으로 움직입니다.

왜 흔한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수시의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수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능최저를 거는 자리	46%
논술 경쟁률 중앙값	36:1
학종 경쟁률 중앙값	12.4:1
교과 경쟁률 중앙값	9:1

여섯 장을 쓴다는 것은 여섯 번의 낮은 확률을 겪는 일입니다. 다 떨어지는 것은 실패라기보다 자주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수시에 다 떨어진 것에는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 정시에 아무 제약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에 등록했다면 정시가 닫혔을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말이 위로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도 사실입니다.** 다음 면부터 무엇이 남았고 무엇을 하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482줄을 저희가 집계. 경쟁률은 전년도 값의 중앙값입니다.

104 · 무엇이 다른가

정시는 다른 시험입니다

정시는 수시의 연장이 아닙니다. **재는 것부터 다릅니다.**

	수시	정시
무엇으로	내신 · 서류 · 논술	수능 성적
몇 장	여섯 장	세 장 (가·나·다군 각 하나)
내신	핵심입니다	대개 안 보거나 매우 작습니다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훨씬 정확합니다

맨 아랫줄이 정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수시는 서류를 사람이 읽고 논술은 그날 쓴 것을 봅니다 —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정시는 이미 나온 점수로 거릅니다. **내 점수도 알고, 대략의 분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는 「잘 보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의 비중이 큼니다. 같은 점수로 어느 대학에 어느 군으로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내신이 안 보인다는 것

수시에서 내신 때문에 좁았던 학생에게 정시는 다른 자입니다. 3년치 기록이 아니라 하루의 점수로 봅니다. 수시에서 안 되던 자리가 정시에서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거꾸로 내신은 좋았는데 수능이 약한 학생에게는 정시가 더 좁습니다. 지금 자기가 어느 쪽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두 달을 어떻게 쓸지를 정합니다.

출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각 대학 정시 모집요강. 군별 모집과 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105 · 무엇이 남았나

세 장과 그다음

남은 길은 넷입니다. 순서대로 보십시오.

차례	무엇	언제
1	정시 세 장 — 가·나·다군에 하나씩	12월~1월
2	정시 추가모집 — 미달 자리를 다시 뽑습니다	2월
3	전문대 — 모집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겨울~봄
4	재수·반수	그다음 해

2번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시에서 정원을 못 채운 자리를 **2월에 다시 뽑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있고, 여기서 자리를 찾는 학생이 해마다 있습니다. **정시 세 장이 다 안 됐다고 그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번도 함께 보십시오. 전문대는 수시·정시 지원 횟수 제한과 별개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과에 따라 취업으로 이어지는 길이 뚜렷한 곳이 있습니다. 「일반대가 아니면 안 된다」로 좁히기 전에 한 번은 보실 만합니다.

4번에 대해 — 정하기 전에 세어 보십시오

재수는 수능을 다시 보는 선택입니다. 내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시가 안 됐으니 재수」는 논리가 어긋납니다 — 재수해도 수시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재수가 값을 하는 것은 「수능을 더 올릴 수 있다」가 분명할 때입니다. 그러니 물음은 이렇습니다. 「올해 수능이 내 실력이었나, 아니면 아직 안 나온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시려면 먼저 정시로 갈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세어 보셔야 합니다. 세어 보기 전에 정하지 마십시오.

출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각 대학 모집요강. 추가모집 실시 여부와 규모는 해마다 다릅니다.

106 · 그래서 무엇을

지금 하실 차례와 점검표

12월의 며칠이 그해를 정합니다. 순서를 지키십시오.

차례	무엇을	왜
1	수능 성적표를 정확히 봅니다	등급이 아니라 표준점수·백분위
2	대학별 반영 방법 을 견줍니다	같은 점수가 대학마다 달라집니다
3	군을 나눠 세 장을 짭니다	같은 군에 둘은 못 씁니다
4	추가모집 까지 염두에 둡니다	2월이 남아 있습니다

2번이 정시에서 가장 큰 이득이 나는 자리입니다. 대학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고 **영어 환산표**가 다릅니다. 내 강한 영역을 크게 보는 대학을 찾으면 공부를 더 하지 않고도 환산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1번을 정확히 하십시오. 정시는 등급으로 겨루지 않습니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봅니다. 같은 2등급 안에서도 점수 차이가 큼니다. 등급만 보고 판단하시면 자리를 잘못 잡습니다.

지금 하실 여덟 가지

- ☐ 수능 성적표의 **표준점수·백분위** 를 적어 두었는가
- ☐ 내가 **강한 영역** 이 무엇인지 아는가
- ☐ 그 영역을 **크게 보는 대학** 을 찾아보았는가
- ☐ 대학별 **영어 환산표** 를 견줘 보았는가
- ☐ **가·나·다군** 을 나눠 짭는가
- ☐ 세 장이 **같은 총** 에만 몰려 있지 않은가
- ☐ **추가모집** 일정을 알고 있는가
- ☐ 재수를 생각한다면 **정시로 갈 수 있는 곳을 세어 본 뒤** 인가

여덟째를 꼭 지키십시오. **세어 보지 않고 정하는 재수가 가장 위험합니다.** 갈 수 있는 곳을 알고 나서도 재수가 낮다면, 그건 근거 있는 선택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급하게 컨설팅을 계약하지 마십시오. 12월은 가장 비싸고 가장 급해 보이는 때라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먼저 성적표를 놓고 대학별 반영 방법을 건주는 일을 해 보십시오. 요강에 다 적혀 있고, 하루면 하십니다. 그것을 해 본 뒤에도 남는 질문이 있을 때 상담을 받으시면 값을 합니다.

107 · 자주 묻는 것

이 시기에 하시는 질문

Q. 재수를 하면 성적이 오르나요?

오르는 학생도 있고 안 오르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희는 「오릅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파는 말입니다.

대신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올해 수능이 평소 모의고사보다 크게 낮았다면** — 아직 안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평소와 비슷하게 나왔다면** — 그것이 지금 실력에 가깝습니다. 올리려면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그게 무엇인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의 값**을 함께 세십시오. 비용과 시간뿐 아니라, **그해에 얻었을 대학 생활**도 잃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집집마다 다릅니다. 다만 **정시로 갈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세어 본 뒤** 정하십시오.

Q.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 줘야 할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가장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저희가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가가 아니라 다음 할 일**입니다.

「왜 안 됐을까」를 이 시점에 되짚는 것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되짚을 시간은 나중에도 있고, 지금은 **정시 세 장을 짜야 하는** 며칠입니다.

「**이제 뭘 하면 되는지 같이 보자**」가 이 시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다음 일이 있으면 **사람은 대개 움직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실제로 큰 일입니다. 학생은 **결과보다 부모의 표정**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한 줄로 남기면

수시가 다 안 됐다는 것은 **정시가 온전히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적표를 펴고 반영 방법부터 견주십시오**. 거기서 남은 길이 보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요강과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시 모집 군·반영 방법·추가모집은 대학과 연도마다 다릅니다. 지원 전에는 각 대학 입학처의 최종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108 · 먼저 사실부터

부모가 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제가 뭘 해 줘야 할까요.」

고3 부모님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해 줄 것」보다 「하지 않을 것」을 정하는 편이 이 시기에는 대개 도움이 됩니다. 불안은 무언가를 하게 만들고, 그 대부분이 역효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도가 정해 놓은 것**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건 판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정하나
자기소개서를 대신 쓰는 것	금지 — 합격 취소 대상
생활기록부에 사교육 내용	기재 제한
면접에서 답하는 사람	학생
충원 전화에 답하는 시간	몇 분
수시 등록 뒤 정시 지원	불가

이 표가 알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입시의 중요한 자리는 대부분 학생이 직접 해야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할 수 있는 자리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몫은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처: 각 대학 요강의 자기소개서 배제사항 및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 아래 장들의 판단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109 · 하지 말아야 할 것

자주 보는 다섯

저희가 상담에서 반복해 보는 것들입니다. 통계가 아니라 저희 경험이니 그렇게 읽어 주십시오.

Q. 하나 — 다른 집 이야기를 옮기는 것

「누구는 어디 붙었대」는 정보처럼 들리지만 정보가 아닙니다. 그 학생의 성적도 서류도 지원 자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학생에게 「너는 왜」로 들립니다 — 의도가 그렇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비교는 정보를 주지 않고 힘만 뺏니다.

Q. 둘 —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과를 묻는 것

「될 것 같아?」는 학생이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이고, 모른다고 답하면 부모가 불안해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답을 하게 되고, 정작 필요한 상의가 안 됩니다. 대신 「지금 뭐 하고 있어?」를 물어보십시오 — 답하면서 스스로 정리가 됩니다.

Q. 셋 — 학원을 늘려 불안을 다루는 것

불안할 때 가장 손쉬운 행동이라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건 부모의 불안을 다루는 일이지 학생의 성적을 다루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3 2학기에는 이미 쌓인 학기가 많아 내신이 크게 안 바뀌고, 늘어난 수업은 혼자 하는 시간을 깎습니다. 늘리기 전에 「이걸 늘리면 무엇이 줄어드는가」를 물어보십시오.

Q. 넷 — 원서를 부모가 정하는 것

학생이 면접에서 답을 못 합니다 — 왜 그 학과인지 스스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는 사람은 학생이라, 납득하지 않은 자리는 3년 뒤에 다시 옵니다.

Q. 다섯 — 떨어진 날 원인을 되짚는 것

되짚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가 나뻑니다. 발표 직후는 다음 할 일을 정해야 하는 며칠이라, 그 시간에 되짚으면 둘 다 못 합니다. 되짚기는 다음 자리가 정해진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 장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통계가 아닙니다.

110 · 대신 하실 수 있는 것

부모만 할 수 있는 자리

반대로 부모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꽤 실무적입니다.

무엇	왜 부모 몫인가	언제
자격 서류	지역인재·농어촌·사회통합 증빙은 가족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름
비용 판단	3년치 비용은 학생이 정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전
전화 받기	충원 통보는 보호자 번호로도 옵니다	12월
일정 관리	여섯 장의 날짜를 한 달력에 모읍니다	원서 전
버틸 자리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	내내

맨 아랫줄이 가장 크고 가장 말하기 어렵습니다. 학생이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가 부정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실패한 뒤에 다시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걸 저희가 상담에서 반복해서 보는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전해집니다

「결과는 상관없어」라고 말하면서 결과에 표정이 바뀌면 학생은 표정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무엇을 할지」를 함께 정해 두는 것입니다. 다 떨어지면 정시로 이렇게 간다까지 미리 이야기해 두면, 그날 당황이 크게 줄어듭니다. 준비된 계획이 있는 실패는 무너짐이 아니라 다음 단계가 됩니다.

이 장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처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111 · 그래서 무엇을

시기별로 하실 일과 점검표

부모의 몫은 시기마다 다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	부모가 할 것	하지 않을 것
여름	자격 서류 · 비용 계산	원서 자리를 대신 정하기
원서 기간	일정 달력 · 마감 시각	「될 것 같아?」 묻기
10~11월	고사장 이동 · 몸 챙기기	다른 집 이야기 옮기기
12월	전화 받기 · 다음 계획	발표 직후 되짚기

부모가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자격 증빙 서류를 **내가** 챙기고 있는가
- ☐ 3년치 **비용** 을 계산해 보았는가
- ☐ 여섯 장의 **일정** 을 한 달력에 모았는가
- ☐ 원서에 적은 **보호자 번호** 가 지금 쓰는 번호인가
- ☐ 여섯 장의 **순위** 를 학생과 함께 정했는가
- ☐ 학생이 「**여기면 다니겠다**」 고 말한 자리만 넣었는가
- ☐ 「다 안 되면 어떻게 할지」 를 **미리 이야기** 해 두었는가
- ☐ 최근 일주일에 **결과를 묻는 말** 을 몇 번 했는가

마지막 항목만 세어 보셔도 됩니다. 세 번을 넘으면 줄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 묻는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고, 묻는 만큼 학생의 힘이 줄어듭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안하실 때 결제하지 마십시오.** 이 시기에 파는 쪽은 **부모의 불안이 가장 확실한 시장**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희도 그 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 「**지금 안 하면 늦는다**」 는 말이 붙은 상품은 한 번 더 보십시오. 정말 늦는 일은 대개 **돈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자격 서류, 추천 신청, 원서 마감, 총원 전화. 그 **넷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112 · 자주 묻는 것

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Q.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자격 서류·비용·일정·전화**는 부모 몫입니다. 이 녀는 **학생이 못 하거나, 하면 공부 시간을 뺏기는 일**입니다. 여기에 힘을 쓰시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일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온 집이 입시 중심으로 돌아가면 **학생이 실패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부모가 평소처럼 지내는 것 자체가 학생에게는 여유가 됩니다.

「덜 하는 것」이 하는 일인 시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Q. 학생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흔한 일입니다. 대개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 **말할 것이 정리가 안 됐거나, 말하면 걱정하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라면 묻는 방식을 바꾸시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를 묻는 질문**은 답하기 어렵고, **사실을 묻는 질문**은 답하기 쉽습니다.

「될 것 같아?」 대신 「원서 마감 언제야?」, 「공부 잘돼?」 대신 「오늘 뭐 했어?」가 답하기 쉽습니다. **답하기 쉬운 질문이 쌓이면 어려운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도 말이 없으면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과 혼자 감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옆에 있다는 것을 알면, 필요할 때 옵니다.

한 줄로 남기면

부모의 몫은 대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놓치면 안 되는 날짜를 지키는 것,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 자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 제도에 관한 내용은 공개 요강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근거합니다. 나머지는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며 통계가 아닙니다.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처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113 · 닫으며

한 줄로 남기면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전체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수시에서 잃는 것은 대개 실력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산술로 정해지는 것을 정확히 하시면, 나머지 불확실은 줄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적힌 것 가운데 상담이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요강을 읽는 일, 달력에 날짜를 찍는 일, 등급을 다시 계산해 보는 일 — 대부분 집에서 하실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해 보신 뒤에도 남는 질문이 있으실 때, 그때 저희를 찾아 주십시오. **그런 질문에는 저희가 값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인쇄하셔도 되고, 파일로 보내셔도 되고, 학교나 모임에서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같은 시기를 지나는 다른 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가 고르게 퍼지는 것이 저희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입시CUBE

이 책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요강과 제도는 해마다 바뀌고 학교·대학마다 다르니, **지원 전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대학의 최신 요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책은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